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0.txt

제목: 日·獨 과학자 등 6명 '아시아 노벨상' 수상  
날짜: 201405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8100000220  
ID: 01100701.201405281000002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불균형 기제를 밝혀낸 일본과 독일 과학자가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쇼상'(Shaw Prize)을 공동수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쇼상 시상식 주최 측은 모리 가즈토시(森和俊) 일본 교토대 교수와 피터 발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생명과학·약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이들은 단백질 분비 불균형으로 당뇨, 암, 낭포성 섬유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 펴짐 반응'(UPR) 기제를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주최 측은 "모리 교수와 발터 교수가 밝혀낸 (단백질 펴짐 반응) 기제는 광범위한 주요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기반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수학 분야에서는 대수학, 대수기하학, 표현론을 연구한 조지 루스티그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수상했다.천문학 분야에서는 초은하단 등 우주의 거대구조를 측정한 대니얼 아이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 숀 콜 영국 더럼대 교수, 존 피콕 에든버러대 교수가 함께 상을 받았다. 쇼상은 영화제작사 '쇼 브라더스'를 설립한 홍콩의 유명 사업가인 런런 쇼(Run Run Shaw·邵逸夫)가 2002년 설립한 상이다. 시상 분야는 천문학, 생명과학 및 의학, 수학 등 3개 부문이며 상금은 각각 100만달러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1.txt

제목: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개발로 수지상세포치료 발전해  
날짜: 20140527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710014370910  
ID: 01100701.20140527100143709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진 일본 암 치료전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모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 줄기세포에서 발현하는 특이항원을 개발해 WT1펩티드(암항원)와 함께 수지상세포에 인식시켜 암을 치료하는 DC-AIVac/CSC요법(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백신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백신치료(DC-AIVac/CSC요법) <br/>암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은 지난 1997년 캐나다 연구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세포에서 최초로 발견했다. 학계에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됐다. 간세포암· 위암· 대장암· 폐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등 15종류의 암 줄기세포가 그것이다. <br/> <br/>암 줄기세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자기와 같은 세포 또는 여러 세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암 치료율이 향상돼 왔다. 하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치적 수술로 암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지만 그러한 경우는 조기에 암을 발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br/> <br/>이어 "특히 화학요법(항암제 치료)의 경우,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대체로 항암제가 반응을 보이지만 휴면상태 또는 휴지기에 있는 암세포에 대해서는 반응이 거의 없는 편이다"며 "암 줄기세포는 평상시에 휴면상태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암세포를 만들어 내곤 한다"고 설명했다. <br/> <br/>동경에 제2 병원을 개설로 구보타 원장과 협진체제 실시 <br/>구라모치 박사는 작년 11월에 정부지원을 받아 동경에 새로이 ‘린카이’ 병원을 개설했고, 구보타 수나오(窪田　倭), 前 미국 성마리안느 대학병원의 외과교수가 병원장을 맡고 있다. <br/> <br/>구보타 원장은 특히 간· 담도· 췌장부위 쪽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구라모치 박사와 함께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구라모치 박사는 일정에 따라 구마모토· 동경을 오가고 있다고 전해졌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본인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가 암치료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표준치료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면서 “표준치료가 되면 암으로 고통 받는 많은 암 환자분들께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희망 섞인 어조로 말했다. <br/> <br/>제 4의 암 치료법으로 알려진 면역(세포)치료 전문병원· 센신병원 구라모치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치료를 선택할 때는 배양시설, 배양기술력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람들은 (주)에스유바이오를 통해 상담을 하면 된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2.txt

제목: 홍정용 교수, 한국암학술재단 학술상 받아  
날짜: 20140526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610014353459  
ID: 01100701.20140526100143534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앙대병원(원장 김성덕)은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사진)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임상암학회 제12차 학술대회에서 ‘한국암학술재단-㈜한미약품 학술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br/> <br/> 수상 논문은 했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서의 p-AKT 발현의 의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비호지킨림프종 가운데 가장 흔한 림프구성 악성 종양으로, 한국인 임파선암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 교수의 연구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있어 새로운 표적 치료제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br/> <br/> 현재 세계 각국에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분자세포학적으로 분석해 환자별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홍 교수의 이번 논문은 종양학 분야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종양학저널(Annals of Oncology)’에 게재될 예정이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3.txt

제목: 암 유전자 ‘검색엔진’ 개발… 암 극복 길 열리나  
날짜: 20140522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000322  
ID: 01100701.201405221000003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에 대한 문헌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엔진을 개발했다. 암 정복을 위한 연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미래창조과학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박종철 교수 연구팀과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이현주 교수가 공동 연구를 통해 암 유전자에 특화된 검색엔진 ‘온코서치’(http://oncosearch.biopathway.org)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암 발병의 주요 원인은 수천개에 달하는 유전자의 비정상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호전달 체계 교란인데, 암 치료법을 발견하려면 유전자 변화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이러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과거 연구결과들을 바로바로 수집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암 관련 유전자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연구 문헌 데이터베이스(DB)에 축적돼 있지만, 문제는 이 방대한 DB에서 얼마나 빠르고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느냐이다.이번 연구팀이 개발한 온코서치는 첨단 텍스트마이닝 기술 등을 적용해 약 300만건의 생물학·의학 연구문헌이 저장된 DB ‘메드라인’에서 유전자 발현량 변화와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암 진행상태를 기술하는 문장만 ‘콕’ 찝어 알려준다. 또 메드라인에 등재된 모든 논문에서 1700종 이상의 악성종양과 7500여 개의유전자 관련 문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줘 암 연구의 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핵산연구’(Nucleic Acids Research) 온라인판 5월 9일자에 게재됐다. 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4.txt

제목: 음식이 약이 되는 ‘푸드슈티컬’ 제품화에 성공  
날짜: 201405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22100000346  
ID: 01100701.2014052210000034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음식이 약’이라는 ‘푸드 슈티컬’ 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식품이 출시됐다.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음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올바른 음식 섭취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공기와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사람들은 음식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 최근에는 음식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TV프로그램이 늘고, 의사들도 병원 치료보다 공공연히 음식을 통한 질병 치료를 언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도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 추세다.몇 년 전부터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을 통해 식품으로부터 영양성분을 추출해 농축한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뉴트라슈티컬’이라는 단어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뉴트리션(영양)과 파마슈티컬(의약)이 결합된 말로 ‘영양이 약이 되게 한다’는 뜻이다. 약사 한형선씨는 “<span class='quot0'>진정한 음식 치유법은 ‘뉴트라슈티컬’ 보다는 ‘푸드슈티컬’이 더욱 효과적</span>”이라고 말했다. ‘요리하는 약사’로 잘 알려진 한형선씨가 주장하는 푸드슈티컬은 음식 그 자체가 약이 되게 하는 기술을 뜻한다.푸드슈티컬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우리 몸은 거대한 소화 메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음식이 입을 통해 들어가면 위는 그것을 소화한 후, 장으로 보내게 되고 장에서는 수 십조개의 미생물들이 장 점막신경세포와 교류하며 인체의 각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 흡수해 간다.둘째, 푸드슈티컬이란 음식으로 장을 복원시키고 훈련시키는 기술이다. 장은 질병 치유에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장에는 뇌세포가 있어 습관이 들게된다. 나쁜 식습관으로 장이 잘못 길들여지면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역으로 좋은 습관이 들면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셋째, 푸드슈티컬이란 장내 미생물군을 회복시키는 음식기술이다. 몸 속 미생물은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일꾼과 같아서 그런 일꾼들이 항생제나 방부제, 농약성분으로 인해 허약해지게 되면 몸은 곧 질병에 걸리고 만다. 그러므로 병든 몸을 회복시키려면 장 내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마지막으로, 푸드슈티컬은 세포들의 센서를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건강한 세포와 암세포의 모양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점은 세포벽 외곽에 있는 섬모돌기들이 암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한 세포는 섬모세포돌기의 센서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음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최종 섬모세포센서들까지도 회복시킨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모자연은 우리 전통 음식을 좀 더 현대의학적 지식 기반에서 재해석하고, 푸드 슈티컬을 기반으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이에 출시한 ‘세포죽’은 환자의 정상세포가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되어 스스로 병든 세포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식품을 해독하고 법제화로 영양소 흡수력을 극대화시킨 음식이다.연구·개발에 참여한 한형선 약사는 “<span class='quot1'>질병 극복의 핵심은 몸 안의 의사를 깨우는 것, 즉 자연치유력 향상이 답</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용서와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강한 의지력은 치유의 문을 여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인체의 암 덩어리도 마음의 응어리가 풀려야 없어진다</span>”고 말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사진=모자연 ‘세포죽’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5.txt

제목: KT, 유전체 분야 미래융합사업 강화  
날짜: 20140515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5100000413  
ID: 01100701.2014051510000041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KT(회장 황창규)와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는 유전체 분석기술의 발달로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유전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학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오는 7월까지 공동설립 한다고 15일 밝혔다.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는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원장 김선영)에 설립되며, KT는 유전체 분석을 위한 첨단 ICT 역량을 제공하고,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은 바이오인포매틱스 기술, 연구 공간과 전문 연구인력을 제공해 유전체 분석 핵심솔루션 개발, 유전체 관련 사업발굴을 본격 추진한다.KT와 서울대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를 미국의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해 학문적인 선도는 물론 기술기반의 사업화를 통해,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전체 분석 기술은 미래 우리 실생활과도 밀접하다. 예를 들어, 특정 암관련 유전체 연구를 통해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도울 수 있고, 발병 후에도 개인 유전체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어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이게 된다.또한, 이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하게 되면 국내외 어디에서든 자신의 유전 정보를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어 그 효용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KT는 “황창규 회장의 취임 후 융합영역에서 미래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ICT와 BT의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 국민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업적인 성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KT는 앞선 IT 기술을 활용해 대용량 유전체 분석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등 생명정보분석 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면 “서울대학교 BT기술과의 융합으로 우리나라의 유전체 분석과 응용의 실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대 오연천 총장은 “글로벌 수준의 IT 역량과 분석 인프라를 두루 갖춘 KT와 세계적 수준의 생명정보학 교수들이 있는 서울대가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바이오인포매틱스와 그 응용에서 세계적으로 선도 위치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유전체 관련 시장은 연평균 3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17년에는 전세계적으로 50조 규모까지 예상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창조산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권준상 세계파이낸스 기자 kjs@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6.txt

제목: "미국펀드에 투자 시 이점은…"  
날짜: 20140514  
기자: 권준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4100000383  
ID: 01100701.20140514100000383  
카테고리: 경제>국제경제  
본문: 아디티아 코왈라 피델리티 자산운용 미국 주식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4일 미국 펀드에 투자할 때의 이점 세 가지를 제시했다.아디티아 코왈라 피델리티 자산운용 미국 주식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코왈라 매니저는 첫 번째 이점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기술과 헬스케어, 소비재, 산업재, 에너지 등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분포도 적절하다”며 “때문에 업종별 전망과 주식 선호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미국 주식시장은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투자할만한 규모의 기업들이 많고, 한 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종목선택이 용이하다”며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기업은 주주친화적인 편이며, 시장 규모 대비 내부자 거래 발생 빈도가 높지 않고, 또한 시장 전반적으로 자본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코왈라 매니저는 현 시점에서 선진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피력했다. 코왈라 매니저는 “<span class='quot0'>지난 10년 동안 브라질, 러시아, 중동 등은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누렸지만, 원자재 초강세가 끝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향후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반면, 미국의 경우 기술과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하는 혁신 사이클이 현재 정점에 있다</span>”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span class='quot0'>1980년대에 애플의 매킨토시가 데스크탑 컴퓨터에 혁명을 가져왔듯이, 다시 한 번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이 모바일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것이고, 현재 그 초기 단계에 있다</span>”고 판단했다. 또한, 코왈라 매니저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과 임상 실험은 의학 분야의 혁신 사이클에도 상당한 기대를 하게 한다”며 “예를 들어, C형 간염 정복과 암 신치료법 개발은 의학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러한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혁신의 측면에서 미국이 굉장히 전도유망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준상 세계파이낸스 기자 kjs@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7.txt

제목: 불의의 사고때 카드빚 면제 서비스 아십니까?  
날짜: 201405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310014242985  
ID: 01100701.201405131001424298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보험은 죽음, 교통사고, 화재 등 미래에 다가올 불행이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누구에게나 불행은 닥칠 수 있기에 일찍이 방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br/> <br/>카드사에도 사망·사고·장애 등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 상품이 있다. 채무자에게 각종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남은 카드 빚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DCDS(채무면제 및 유예 계약) 서비스다. 불의의 사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때 카드 사용액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사의 지원금 지급이 ‘포지티브’ 방식이라면 DCDS는 앞으로 내야 할 결제 금액을 면제해주는 ‘네거티브’ 형식의 보험인 셈이다.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모든 전업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다. <br/> <br/>일부 텔레마케팅 상담원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불완전 판매를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일종의 보험으로서 제대로 알고 이용하면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DCDS의 이해와 시장확대 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호주 등에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이 서비스를 도입해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업카드사만 판매 가능하다. <br/> <br/>◆가족형, 건강보장형, 여성형… 상황에 맞게 선택 <br/> <br/>7개 전업카드사가 채무를 변제해주는 사고는 거의 비슷하다.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암, 장기이식수술, 골절, 자동차사고(6주 이상 진단 시), 휴대전화 수리, 부인과 관련 질병 수술, 중장기입원, 얼굴 성형(흉터 수술), 주택 화재, 화상, 전화금융사기, 유괴·인신매매, 도난손해, 장기실업, 자연 또는 특별재해 등이다. <br/> <br/>카드사별 서비스 이름은 다르지만 대개 가족형, 개인형, 여성형 등 특성을 살려 구성했다. 무턱대고 보장 범위가 넓은 서비스에 가입해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족형에 가입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카드 청구 금액을 면제해주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다. 여성형은 부인과 관련 질병 수술과 얼굴의 흉터 성형을 포함하고 있다. <br/> <br/>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면 실업 관련 서비스도 고려해볼 만하다. 삼성카드 ‘실업보장형’, ‘장기실업보장형’, 신한카드 ‘종합보장1’, 현대카드 ‘직장인플랜’ 서비스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카드 청구 금액을 면제 또는 유예해준다. 사업을 운영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도 있다. 삼성카드 ‘가맹점보장형’은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절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드 빚을 면제해준다. <br/> <br/>◆7개 전업카드사, 올해 1분기 61억원 지원 <br/> <br/>DCDS 수수료는 매달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해 책정한다. ‘나’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이 0.3%, 청구된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서비스 이용료는 3000원이다. 이번 달 카드 채무액이 50만원이라면 이용료는 그 절반인 1500원이 된다. 가입 이후 카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상품은 유지된다. <br/> <br/>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 상품 중 수수료율이 낮은 서비스는 하나SK카드의 ‘기본형1’(0.14∼0.24%), 신한카드 ‘실속형2’(0.19%), 삼성카드 ‘개인형’(0.17∼0.22%)으로 자신의 사망, 치명적 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만성신부전증, 암 등), 치명적 상해 등 상대적으로 큰 사안에만 대비한다. 수수료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 <br/> <br/>수수료율이 높은 서비스는 비씨카드 ‘KIDS safe’(0.41∼0.60%), 삼성카드 ‘라이프가족형’(0.42∼0.54%), 하나SK카드 ‘일반형 2, 3’, 현대카드 ‘라이프플랜’(0.53∼0.59%)으로 본인의 사망과 질병 외에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서비스는 채무 면제를 받게 되면 끝난다. <br/> <br/>채무면제 및 유예를 받으려면 카드사별 보상전담팀에 사건 발생 이후 5년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DCDS 이용자는 279만7000명으로 삼성카드(85만2000명), 신한카드(67만5000명), 현대카드(55만6000명), KB국민카드(32만2000명), 롯데카드(29만명), 하나SK카드(9만3000명), 비씨카드(9000명)다. 7개 카드사가 올해 1분기 서비스 가입자에게 면제해준 금액은 61억원이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8.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중동 '의료한류' 불 지핀다  
날짜: 20140511  
기자: 김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110014216618  
ID: 01100701.201405111001421661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아산병원과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의대 관계자들이 두 기관 간의 유료 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욱 서울아산병원장, 파하드 알자밀 킹사우드 의대 학장, 아메드 알아메리 킹사우드 대학교 부총장.서울아산병원(원장 박성욱)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의대와 유료 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r/> <br/>협약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첨단 의료기술과 기초 의과학 및 임상연구 등 국내 선진 의료 교육을 킹사우드 의대생들에게 제공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세부 교육 과정은 킹사우드 의대생들의 사전 신청에 의해 조율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작하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매년 5∼6월 총 4주일에 걸쳐 킹사우드 의대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연간 15만6000달러(약 1억6000만원)를 교육비로 지급받는다. <br/> <br/>킹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워진 중동지역 최고 명문대 중 하나다. 1967년 설립된 의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의과대학으로, 이곳에서 지금까지 배출한 4000여명의 의사가 중동지역은 물론 유럽·아시아 등으로 진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br/> <br/>킹사우드 의대 파하드 알자밀 학장은 “<span class='quot0'>서울아산병원은 장기이식 수술을 비롯한 암, 심장, 뇌신경 등 중증질환에 대한 세계 최다의 임상 경험과 최고의 의료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span>”는 말로 연수 프로그램 협약 체결 이유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협력 체결이 중동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의료관광 마케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연수 프로그램과 함께 의료진 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한국 의료 기술의 경쟁력을 알려나갈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09.txt

제목: "키 작을수록 오래 산다"<美연구팀>  
날짜: 201405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510100000078  
ID: 01100701.201405101000000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키가 작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하와이 대학 의과대학 노인의학전문의 브래들리 윌콕스 박사가 하와이 거주 일본계 주민 8천6명을 대상으로 1965년부터 거의 50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와이 리포터(Hawaii Reporter)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0알 전했다.이들을 신장 기준으로 157cm 이하와 162cm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157cm 이하 그룹의 수명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윌콕스 박사는 밝혔다.전체적으로 키가 클수록 수명은 짧은 경향을 보였다.유전자 분석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수명 관련 FOXO-3 유전자의 변이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이 때문에 성장 초기에 체구가 다른 사람보다 작고 수명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윌콕스 박사는 분석했다.키가 작은 사람들은 또 혈중 인슐린 수치와 암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하와이는 미국에서 주민들의 평균수명이 가장 길고 또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기 때문에 이처럼 장기간의 조사가 가능했다고 윌콕스 박사는 설명했다.조사 대상자 중 약 1200명은 90~100세까지 살았고 이 중 250명은 아직 살아있다.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PLoS One) 최신호에 실렸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0.txt

제목: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 짧고 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날짜: 201404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9100000368  
ID: 01100701.20140429100000368  
카테고리: 국제  
본문: 남자가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수명이 짧고 암 발생률도 높은 것은 남자에게만 있는 성염색체인 Y염색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여성은 2개의 X염색체(XX), 남성은 X염색체 하나와 Y염색체 하나씩(XY)을  가지고 있다. 남성의 Y염색체는 나이를 먹으면서 체세포 속에서 점차 소실되는데 이는  노화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생각되고 있다.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라르스 포르스베리 박사는 그러나 Y염색체 소실이 수명  단축과 암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70대와 80대 초반 노인 1천153명에게서 채취한 혈액샘플로 DNA를 분석하고 장기간 지켜본 결과 세포에 Y염색체 소실이 심하면 수명이 암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르스베리 박사는 밝혔다.전체적으로 이들 중 8%는 혈액세포에 Y염색체 소실이 나타났고 약 2%는 혈액세포의 약 35%에 Y염색체가 없었다.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명이 5.5년 짧았고 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다.이 결과는 Y염색체에 암을 막아 주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포르스베리 박사는 해석했다.Y염색체가 없으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이 방치되는 것으로 그는 추측했다. Y염색체는 X염색체에 비해 짧고 빈약해 남성성을 결정하고 정자생산을 보장하는것 외에는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그러나 최근에는 Y염색체에 기능을 알 수 없는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암세포에는 Y염색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 유전학’(Nature Genetics) 온라인판(4월28일자)에 실렸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1.txt

제목: “바이오산업 신기술 눈으로 보세요”  
날짜: 201404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710014096344  
ID: 01100701.201404271001409634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바이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충북 오송에서 펼쳐진다. <br/> <br/>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청주시 등이 공동 개최하는 이 행사는 9월 26일∼10월 12일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을 주제로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펼쳐진다. 바이오엑스포는 바이오미래관(주제관)과 바이오 건강체험관, 바이오 뷰티마켓 등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이 참여하는 기업관과 산업관이 운영된다. <br/> <br/>바이오미래관은 ‘인류의 희망 바이오’를 주제로 기아와 질병, 기후변화 등 인류가 안고 있는 난제를 풀 바이오신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br/> <br/>DNA 이중나선 구조를 형상화한 터널을 빠져나오면 코에 뿌리는 독감백신,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와 혈관치료 로봇,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공장기 생산기술, 중금속을 흡수하는 나무 등 최신 바이오 기술과 만날 수 있다. 피 한 방울로 6대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암검진을 비롯해 주요 장기의 나이, 비만나이 등을 알 수 있는 생체나이 측정, 개인 맞춤의학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 다양한 진단과 검사로 ‘질병없는 바이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br/> <br/>뷰티체험관은 바이오 기술로 예뻐지는 방법이 소개된다. 두피와 모발 진단, 스마트미용 기기와 미생물 비누 클렌징 체험, 기능성 의류와 식품 체험할 수 있다. 에듀체험관은 신비로운 생명의 세계와 생명공학의 기초지식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정상세포와 암세포 관찰, 동·식물세포 관찰, 다양한 과일의 DNA 추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br/> <br/>충북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학계에서는 바이오신약 한 개 품목이 안겨주는 순이익이 자동차 300만대의 수출효과를 낸다는 분석을 낸 적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 <br/>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2.txt

제목: 수지상세포치료를 이용한 암줄기세포백신치료, 암치료 유효율 높여  
날짜: 20140424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410014078481  
ID: 01100701.20140424100140784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센신병원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면역치료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CTC검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br/> <br/>CTC(Circulating Tumor Cell)는 혈액순환종양세포· 즉 혈액 중에 떠다니는 암세포로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타고 순환하면서 장기로 이동해 전이 또는 재발을 일으킨다. 암세포 입자크기가 클 때에는 일반적인 검사로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미세한 암세포일 때에는 측정이 어렵다. CTC검사는 이러한 미세한 암세포를 특수 기술로 검출해내는 최신 검사법으로 알려졌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5종복합면역요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5종의 세포를 동시에 배양해 면역세포간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팀플레이(Team Play)를 통해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치료법으로 암치료 유효율을 크게 높여 왔다</span>”고 전했다. <br/> <br/>이러한 치료방법은 일본 내 대학병원이나 종합의료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35여 개의 제휴 의료기관에 공급해주고 있다. 또한 ‘암 면역요법용 세포의 제조’에 관한 특허를 일본과 한국에서 취득했다. <br/> <br/>또한 5종복합면역요법을 개량해 암치료 유효율을 더욱 향상 시킨 DC-AIVac/WT1(新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은 암치료 유효율을 70~75%정도로 끌어 올렸다고 구라모치 박사는 설명했다. <br/> <br/>한편 구라모치 박사는 재작년, 식도암 판정을 받고 스스로 자신이 개발한 암 면역 치료를 시행   중이다. 작년 11월에는 서적 ‘당신은 암 환자라서 행복하다’를 출판했다. 이 책에는 암환자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기술돼있다. <br/> <br/>현재 구라모치 박사는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타겟으로 한 DC-AIVac/CSC요법(암줄기세포특이항원백신요법)을 개발해 작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5종복합면역요법과 수지상 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이 결합한 것에 암줄기세포 특이 항원을 추가로 인식시켜 암의 근원인 암줄기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 하도록 한 암치료법이다. <br/> <br/>구라모치 박사는 “<span class='quot0'>DC-AIVac/CSC요법과 면역세포치료의 결과를 더욱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CTC검사를 도입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고 치료할 경우, 그만큼 암환자가 받게 될 고통도 줄일 수 있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3.txt

제목: 노바티스 항암신약 LDK378, ALK+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58%의 전체반응률 달성  
날짜: 2014042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23100000292  
ID: 01100701.2014042310000029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노바티스에서 폐암치료제로 개발 중인 항암신약 LDK378(성분명 세리티닙)이 진행성 역형성 림프종 키나제 양성(ALK+)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게 1일 400mg 이상 투여한 결과 58%의 전체 반응률과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을 달성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오브메디슨(NEJM)지에 게재됐다.이번 임상연구는 흔히 처방되고 있는 ALK 억제제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를 받는 도중 또는 받은 후에 암이 진행한 환자와 과거에 ALK 억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포함해 총 114명의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노바티스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임상 총괄 책임 연구자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병원 암센터의 앨리스 T. 쇼(Alice T. Shaw) 박사는 “<span class='quot0'>연구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LDK378에 대한 임상적 반응을 경험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뿐만 아니라, 이전에 크리조티닙을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에 치료되지 않은 병변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대부분 환자들이 크리조티닙 치료를 시작하고 1년이 채 안 되어 재발되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NEJM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서 1일 400mg에서 최대 750mg 내약용량의 LDK378로 치료받은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7개월의 무진행 생존 중앙값(95% 신뢰구간: 5.6∼9.5개월)이 입증됐다. 연구에서는 이 밖에도 일일 750mg의 LDK378을 복용한 환자에서 59%의 전체반응률(ORR)(95% 신뢰구간: 47∼70%)이 보고됐다. 관찰된 반응을 통해 LDK378이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았던 환자를 비롯해 ALK 유전자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났거나 또는 일어나지 않은 진행성 ALK+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작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오심(82%), 설사(75%), 구토(65%), 피로감(47%), ALT(alanine aminotransferase) 수치 상승(35%)이었다. 이번에 게재된 초기연구결과는 2013년 미국임상종약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현재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비소세포폐암은 가장 흔한 폐암으로 전체 폐암의 85∼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환자의 2∼7%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증식시키는 ALK 유전자 재배치가 일어난다. 주로ALK 음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보다 비흡연자이고 젊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은 현재 매우 제한적이다.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사장이자 항암제 개발 및 의학부 글로벌 책임자 알렉산드로 리바(Alessandro Riva) 박사는 “<span class='quot0'>NEJM에 게재된 주요임상결과는 노바티스에서 LDK378 첫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FDA가 승인신청서를 받아들여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FDA와 전세계 보건 당국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이 중요한 치료 옵션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FDA는 LDK378을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한 바 있다. 획기적 치료제는 최소한 1개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평가변수에 있어 기존 치료제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개발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현재 LDK378에 대한 여러 건의 주요 임상연구가 전세계 30여 개국의 300여 개 이상의 연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4.txt

제목: "심한 코골이, 뇌졸중·암 위험 높아"  
날짜: 201404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5100000170  
ID: 01100701.2014041510000017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과 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란 수면 중 코를 심하게 골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끊기는 현상을 말한다.호주 시드니 대학의 너새니얼 마셜 박사는 보통 내지는 심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뇌졸중과 암 위험을 각각 4배, 2.5배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15일 보도했다.암과 뇌졸중 병력이 없는 성인 397명을 대상으로 20년에 걸쳐 진행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마셜 박사는 말했다.심한 코골이 그룹은 또 사망위험도 4.2배 높게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위험은 3.4배 높았다.이 결과는 체중,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등 다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수면의학학회 학술지 '임상 수면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최신호(4월15일자)에 실렸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5.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  
날짜: 20140414  
기자: 전상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410013994108  
ID: 01100701.20140414100139941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은 지난 11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2011년 4월 처음 로봇수술을 적용한 이래 3년 만에 전립선암 100례를 달성했다. <br/> <br/>100번째 수술을 받은 이모(74)씨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은 뒤 로봇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는 말씀을 듣고 로봇수술을 선택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다음날부터 바로 걸어다닐 정도로 회복속도가 빠른 것 같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완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1'>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로봇수술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br/> <br/>그러나 로봇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br/> <br/>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세계 유수의 전립선암 논문 38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방광 목 부위가 수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복강경 수술의 40%,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성기능 회복률이 복강경 수술보다 1.39배 높았다.  <br/> <br/>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6.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로봇수술에 100례  
날짜: 201404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3100000136  
ID: 01100701.2014041310000013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이 4월 11일 전립선암 로봇수술 100례를 돌파했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로봇수술센터는 2011년 4월 처음 로봇수술을 적용한 이래 3년 만에 전립선암 100례를 달성했다. 100번째 수술을 받은 이모(74)씨는 “전립선암 2기 판정을 받고 이 분야에서 로봇 수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왔다. 수술 후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서 로봇수술을 선택했다. 첫날인데도 크게 아프지 않고 내일이면 걸어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완 로봇수술센터장은 “로봇수술은 수술자의 손 움직임대로 540도 이상 회전하는 로봇관절이 있어 자유로운 손놀림이 가능하며,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복강 내 장기들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후 회복과 기능보존 등에서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로봇수술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립선이나 대장, 직장과 같이 작고 좁아 수술이 까다로운 부위의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교한 수술이 요구될수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한편, 로봇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로봇수술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이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세계 유수의 전립선암 논문 38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개복·복강경 수술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광 목 부위가 수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복강경 수술의 40%,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성기능 회복률이 복강경 수술보다 1.39배 높았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로봇수술의 장점(1)회복속도가 개복수술에 비해 빠르다.(2)통증, 출혈이 개복수술에 비해 적다.(3)상처감염의 위험성이 개복수술에 비해 감소한다.(4)수술 후 회복이 개복수술에 비해 빠르다.(5)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에 비해 신경손상이 작고, 주변조직 손상이 작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7.txt

제목: 상근이가 앓았던 비만세포종은 어떤 암?  
날짜: 201404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2100000194  
ID: 01100701.201404121000001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 애완견 상근이가 숨을 거뒀다. 상근이는 지난 11 오후 1시께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괴사성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을 앓고 있던 상근이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다고 알려졌다.상근이가 앓았던 괴사성 비만세포종(mast cell tumor)은 결합조직에 존재하는 비만세포의 악성증식이다. 이 병은 비만과는 상관없는 병으로, 개와 고양이에서 발병하는 부스럼이 산발성을 띄는 질환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스럼인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악성종양이라고 판정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상근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상근이 안타깝네” “상근이 암이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8.txt

제목: 차가버섯, 베타글루칸을 비롯한 유효성분 다량 함유  
날짜: 2014041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110013982612  
ID: 01100701.201404111001398261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보완대체식품 전문기업 고려인삼공사는 천연 대체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가버섯에 베타글루칸 외에도 다양한 유효성분들이 다량 함유됐다고 설명했다. <br/> <br/>차가버섯에 함유된 것으로는 익히 알려진 베타글루칸, SOD 항산화물질을 비롯한 폴리페놀은 물론이고 이노시톨· 망간· 아연· 각종 유기산 등 여러 생리 활성 물질 등이 있다. <br/> <br/>이 중에서도 오랜 연구결과, 유독 차가버섯에 많이 들어있고 약효가 우수한 성분은 베타(1-3)글루칸이다. <br/> <br/>베타(1-3)글루칸은 차가버섯의 효능을 좌우하는 매우 주요한 성분이다. 베타글루칸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버섯류에 함유되어 있다. <br/> <br/>하지만 차가버섯에 함유된 베타(1-3)글루칸은 다른 버섯류가 갖고 있는 베타글루칸과 비교해 차이를 보인다. <br/> <br/>베타(1-3)글루칸은 질병이 있는 환자의 몸에 흡수되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일부 암에도 높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r/> <br/>차가버섯의 베타(1-3)글루칸 함량은 항암버섯으로 유명한 아가리쿠스보다 5배 이상, 상황버섯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높은 차이를 보인다. <br/> <br/>러시아 키트(K&T LTD)차가버섯의 아시아·미국총판을 맡고 있는 고려인삼공사의 관계자는 ”차가버섯에는 베타클루칸 외에도 칼슘·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C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며 ”때문에 차가버섯의 효능은 베타글루칸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유효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19.txt

제목: [김기환의 완벽한 쇼핑] ‘폭탄주’ 왜 빨리 취하는 걸까  
날짜: 201404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1010013974668  
ID: 01100701.201404101001397466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주당들 상당수는 처음 한두 잔은 소주를 마시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폭탄주’를 돌린다. <br/> <br/>폭탄주는 어느 한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맥주, 소주, 양주 등을 섞어 마시는 것으로 사람을 심하게 취하도록 만든다. 술을 섞어 마시면 빨리 취하는 이유는 뭘까? <br/> <br/>폭탄주가 한 종류의 술을 마셨을 때보다 더 취하는 것은 알코올의 농도와 관계가 깊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농도가 20%일 때 사람 몸에 가장 빨리 흡수된다고 한다. 그런데 알코올 농도 40%의 양주와 4.5%인 맥주가 섞이면 농도가 20% 정도로 희석된다. 그래서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는 알코올이 사람 몸에 빨리 흡수돼 그만큼 빨리 취하게 된다. <br/> <br/>맥주에 소주를 섞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술에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섞으면 탄산이 알코올 흡수를 촉진시켜 빨리 취하게 만든다. 마시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명의 술자리에서 돌아가는 폭탄주는 ‘완샷’을 해야 한다. 술이 취하는 정도는 술 마시는 속도와 비례하는 법. 단숨에 마시게 되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천천히 술을 즐기는 것보다 더 쉽게 취한다. <br/> <br/>폭탄주가 해로운 것은 몸에 빨리 흡수돼 빨리 취하는 것만이 아니다.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간에 독성이 많이 쌓인다. <br/> <br/>특히 서로 다른 술에 있던 불순물이 반응해 혈관, 근육, 신경, 그리고 뇌세포 등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킨다. <br/> <br/>이 가운데 일부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알코올 산화효소에 의해 숙취의 원인이자 소관기관 암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뀐 후 혈액으로 들어간다. 한마디로 폭탄주는 건강을 해치는 독주다. 폭탄주에 대해 이쯤 알았으면 오늘 저녁은 부드러운 술로 가볍게 즐기는 게 어떨까. 맥주업체들은 최근 출시한 맥주가 폭탄주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br/> <br/>청량감을 강화하고 부드러운 목 넘김을 강조하거나, 거품의 풍부한 맛을 즐겨보라고 권유한다. 맥주는 보리로 만들어 섬유질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보리속의 실리콘이 인체의 알루미늄을 제거해 치매를 예방해주고, 맥주 1∼2잔을 마시면 동맥혈류가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br/> <br/>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0.txt

제목: 암조직 찾아 치료제 투하… ‘나노수류탄’ 개발  
날짜: 201404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610013932263  
ID: 01100701.20140406100139322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나노입자 연구단 현택환(사진) 단장과 가톨릭대학교 나건 교수 공동 연구팀이 암을 진단하는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나노수류탄’을 개발했다. <br/> <br/>6일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따르면 나노수류탄은 산화철 나노입자와 광역학 치료제를 결합해 만들어졌다. 나노수류탄은 정상조직에서는 다발 형태의 구 모양을 띠고 있지만, 정상조직보다 산도가 낮은 종양세포에서는 붕괴돼 형태가 사라지면서 형광 빛과 함께 MRI 시그널을 나타내게 된다. <br/> <br/>나노수류탄이 암 조직에 도달하면 매우 작은 3㎜ 이하의 초기 종양조직을 MRI와 형광 영상을 통해 진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노수류탄이 터지면서 함께 나오는 ‘광감각제’(빛에 의해 작용하는 물질)에 레이저를 쏘아줌으로써 이질적 종양의 광역학 치료도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br/> <br/>나노입자를 이용한 기존 종양 치료법은 ‘종양의 이질성(종양세포가 특성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복제 종양세포를 생성하는 현상)’으로 인한 약물 내성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웠다. 연구결과는 화학분야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ACS)’ 2일자에 실렸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1.txt

제목: 유방 석회화, 유방 촬영술로 정확한 유방암진단 필수사  
날짜: 20140403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3100000403  
ID: 01100701.2014040310000040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방암을 발견하는 최적의 방법은 유방암 검진이다. 유방암 검진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유방암 검진이 보편화되어 여성분들이 매년 유방암 검진을 한다. 이 같이 단지 정기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한 유방암 검진에서 ‘유방 석회화’가 보이는 경우가 있다.유방 석회화란 칼슘이 침착되어 사진 상으로 석회가루처럼 흰점이 보이는 것이다. 유방 석회화는 여러 모양이 있고, 개수와 분포가 다양하다. 대부분 암과 관련이 없으나 크기가 유방촬영을 했을 때 크기가 큰 경우 오히려 암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크기가 미세할수록 암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유방 석회화는 유방암과 연관 유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 석회화 소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양성을 시사하는 양성 유방 석회화와 악성을 시사하는 악성 유방 석회화가 있다. 양성 유방 석회화는 전형적인 석회화로서 모양이 일정하게 둥글거나 혹은 팝콘 모양이다. 이는 한 곳에 뭉쳐있지 않고 여러 곳에 퍼져있거나 단독으로 존재하며 대개 유방암과 관련이 없다. 반면에 악성 유방 석회화는 모양이 불규칙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한 곳에 5개 이상 군집을 이루거나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이며 유방암을 유발하는 석회화이다. 유방촬영술에서 악성 유방 석회화가 발견되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양성 유방 석회화의 특징을 보이면 유방 촬영술만으로 진단을 끝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확대 촬영이나 조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특히 한 부분에 미세한 유방 석회화가 모여 있는 경우 유방암의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암세포들의 일부가 죽어 변성되면서 생기는 석회화인데 암이 진행되면 종양이 만져지거나 초음파에서 쉽게 종양이 확인되어 조직검사가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유방암의 전단계인 상피내암인 경우에는 유방초음파로 보아도 유방암 조직이 확인이 안 될 정도의 작은 암에서 유방 석회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유방 촬영술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 유방암을 진단하는데 유방촬영술은 중요한 진단법이다.유방 석회화는 양성에서부터 암이 확실한 악성에까지 그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여성분들 중에는 유방촬영술이 아프고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유방초음파 검사만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 유방 석회화는 유방초음파 검사로는 정확한 진단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유방암진단을 위해 유방촬영술은 중요하다. 유방암이 의심되는 유방 석회화가 보이면 조직 검사로 초기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다.유방 촬영술은 양쪽 유방을 다른 방향으로 각각 2장씩 촬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검사 시간은 약 5~10분이며 특별히 고안된 플라스틱판으로 유방을 꾹 눌러서 찍는다.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유방외과 아산유외과 홍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유방 촬영술은 검사 시, 많이 눌러 유방이 납작해질수록 방사선에 노출이 적으며 유방 내부가 잘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는 작은 암도 진단이 가능한데 유방은 부드러운 조직으로만 되어 있어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영상이 흐리게 나오므로 적절한 압박이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유방암은 한국 여성 암 중에 1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여자라면 방심할 수 없는 병이다.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비만과 모유 수유의 감소로 인해 20~30대 여성들도 유방암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예후가 좋다. 유방암은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 유방암 진단의 기본은 유방 촬영술인 X-ray촬영과 유방 초음파이다. 유방 촬영술은 초기 암에서 잘 나타나는 유방 석회화를 유방 초음파보다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검사이다. 이와 관련 아산유외과 홍수정 원장은 “<span class='quot0'>동양 여성의 경우 유선조직이 촘촘한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아 유방촬영만으로 확인이 어렵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촬영술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므로 치밀 유방이라면 반드시 유방초음파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2.txt

제목: 대장 안에서 암 발생 억제하는 활동 발견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000438  
ID: 01100701.201404011000004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조직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석좌교수는 송제훈 박사과정 연구원, 영국 암연구소 오웬 삼손 박사 연구팀, 아일랜드 연구소 보리스 콜로덴코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주도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생명체는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지만, 복구를 위해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대장 점막에 있는 '장샘'은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소화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변이 확률이 높다.연구팀은 대장조직이 암을 억제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세포를 장샘에서 빨리 내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이된 세포의 장샘 체류시간을 줄여 비정상적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대장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연구팀은 수학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또 생쥐를 모델로 한 실험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했다.유전자 변이로 '윈트신호전달'이 강화된 변이세포는 장샘의 위로 더욱 빠르게 이동하고, 장샘을 벗어나 장내로 배출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윈트신호전달은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경로로 항상성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포 외부에서 윈트신호가 들어오면 베타카테닌을 분해해주는 복합체가 억제되면서 세포증식을 돕는 유전자가 발현되고, 세포증식이 일어난다.유전자 변이로 윈트신호전달의 핵심회로인 베타카테닌이 분해되지 못하면, 축적된 베타카테닌이 세포증식을 활성화하고 세포의 접착력을 높인다. 비슷한 접착력을 가진 세포들이 모이려는 성질 때문에 결국 변이된 세포는 장샘에서 배출된다.조 교수는 "다세포 생명체는 비성장적 세포변이가 발생해도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돼 있음을 규명한 것"이라며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를 융합한 시스템생물학 연구로 생명현상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말했다.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셀(Cell) 자매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 온라인판 3월28일자에 게재됐다.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3.txt

제목: "아스피린, 대장암에 효과있다" 연구결과 발표  
날짜: 20140401  
기자: 고용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000458  
ID: 01100701.20140401100000458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두통치료제·해열제·진통제·항류머티즘제 등으로 잘 알려진 아스피린이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과학매체 라이브 사이언스닷컴은 네덜란드 레이덴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아스피린 복용 시 체내에서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단백질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연구진은 2002~2008년 사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 999명의 종양 조직을 분석한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아냈다. 이들 중 평소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환자는 총 182명 이었고 그중 2012년 1월 사망자수는 69명이었다. 반면 평소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았던 817명의 환자 중 같은 해 사망자수는 396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연구진은 아스피린 복용 시 생성되는 단백질 항체인 HLA(human leucocyte antigen, 조직적합항원)가 암 면역체계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아직 정확한 기전(機轉)은 밝혀지지 않았다.레이덴 의료센터 게릿 장 리퍼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는 아스피린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span>”라며 “<span class='quot0'>아직 아스피린을 항암제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만일 명확한 작용원리가 증명되면 값비싼 암 치료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 될 것</span>”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0'>현재 아스피린을 항암제로 추천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는 중</span>”이라고 전했다. 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4.txt

제목: 대장 내 암발생 억제 메커니즘 규명했다  
날짜: 201404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40110013895324  
ID: 01100701.20140401100138953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조직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br/> <br/>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사진) 석좌교수는 송제훈 박사과정 연구원, 영국 암연구소 오언 삼손 박사 연구팀, 아일랜드 연구소 보리스 콜로덴코 박사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주도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br/> <br/>대장 점막에 있는 ‘장샘’은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소화과정에서 생기는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변이 확률이 높다. 연구팀은 대장조직이 암을 억제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로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 세포를 장샘에서 빨리 내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변이된 세포의 장샘 체류시간을 줄여 비정상적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대장에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br/> <br/>이번 연구의 결과는 셀(Cell) 자매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 온라인판 3월28일자에 게재됐다. <br/> <br/>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5.txt

제목: 삶의 질 우선시하는 미래 선도기술, ‘폐암의 면역암치료’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7100000307  
ID: 01100701.201403271000003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시켜 인체가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있게 한 면역 치료법이 美 ‘사이언스’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연구성과(Top 10 Breakthroughs of the year)’ 중 1위를 차지한 소식이 화제가 됐다.의학계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은 통합의학· 암을 국소병이 아닌 전신병· 만성병으로 인식하고 치료에 임하는 시각은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의신 박사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암을 양한방 통합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관련 전문가는 전했다.특히 폐암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은 항암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한방치료 병행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입 주변 농포나 가려움· 흉부 이상 피부에 염증 발생, 설사 또는 간질성폐렴에 대해 한방에서는 유근피를 활용한 면역약침을 부작용 병변 부위에 도포하거나 투여해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고 있다.치료과정에서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전문의료기관 부문의 미래선도 혁신 브랜드로 면역암치료 한방병원이 선정되는 등 면역암치료· 통합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미래선도 혁신 브랜드로 선정된 소람한방병원 성신 한의학 박사는 “<span class='quot0'>부작용을 동반하는 항암치료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항암치료효과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한약재의 추출물을 항암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복약시켰을 경우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치료효과도 증가된다는 사실이 국제적인 논문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span>”고 전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6.txt

제목: 비타민C 결핍,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준다  
날짜: 20140325  
기자: wick@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5100000411  
ID: 01100701.201403251000004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타민C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25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이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Vitamin C and wellness for aging society)’라는 주제로 열렸다.한국식품과학회(회장 이호)가 주최하고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후원하는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은 비타민C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의학, 약학, 식품영양학 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학술행사로, 2008년부터 2년마다 국내외 비타민C 연구의 각계 권위자들이 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어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비타민C가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등 노화관련 질병과 유방암 등 암질환에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비타민C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피오나 해리슨 교수(Fiona Harrison, Ph.D.)는 비타민C 결핍이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피오나 해리슨 교수는 ‘노화와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비타민C의 영향에 관한 연구(Vitamin C in mouse models of aging and Alzheimer's Disease)’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span class='quot0'>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으므로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비타민C 결핍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밀로이드를 축적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체내 비타민C 수치는 신경근육 및 기억력 결손과 직결되며, 비타민C의 섭취는 인지 능력, 그리고 노화를 진행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에드거 밀러 교수(Edgar Miller III, Ph.D., M.D.)는 ‘비타민C 보충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Vitamin C Supplements effects on Blood Pressure)’이라는 주제로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임상결과를 발표했다.에드거 밀러 교수는 “비타민C를 매일 60~4000mg 정도 복용한 140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C 섭취가 단기적으로 혈압을 감소시켰으며 비타민C가 노화를 진행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an class='quot1'>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혈압 감소 효과를 보였다</span>”고 덧붙였다.국내 연자의 암질환 관련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의대 이왕재 교수의 ‘유방암에 대한 비타민C 치료의 지침이 되는 비타민C 수용체(SVCT-2)연구’는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유방암 세포에 대한 비타민C의 항암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이왕재 교수는 “<span class='quot2'>유방암 세포주에 비타민C를 전달하는 단백질인 SVCT-2(비타민C 수송체, sodium-dependent vitamin C transporter)가 많이 발현하면 비타민C의 암세포 사멸 경향이 높고, SVCT-2가 적게 발현하면 비타민C의 암세포 사멸 경향이 적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기존의 항암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SVCT-2가 많이 발현하는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밝혔다.이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바 의대 타카히코 시미즈 박사가 ‘마우스에서 비타민C의 노인성 질병 예방 효과’란 주제로 알츠하이머와 골다공증 상관관계 발표를, 고신대 의대 최종순 교수가 ‘비타민C의 암 치료의 임상적 결과’, 염창환 대한비타민연구회 회장이 ‘비타민C의 항암 부작용 관리와 삶의 질’을 발표하는 등 비타민C와 노인성 질병 및 암 질환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이뤄졌다.또한 덕성여대 조애리 교수와 한양대학교 이현규 박사, 연세대 황재관 박사가 비타민C의 피부노화 억제 효과 등을 다뤄 다양한 주제의 비타민C 관련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한국식품과학회는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보다 많은 효능을 밝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비타민C 500mg을 드링크 한 병에 담은 ‘비타500’이 출시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 받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온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동제약은 산학협동을 통해 비타민C에 대한 공동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다양하고 풍부한 비타민C 관련 연구 성과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조원익 기자 wick@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7.txt

제목: “액티브엑스, 액티브하게 ‘X’ 해달라”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2110013796839  
ID: 01100701.2014032110013796839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액티브엑스(Active X)’가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암적 규제로 지목됐다. <br/> <br/>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한다”며 “바로 액티브엑스 때문이다. 아주 액티브하게 ‘X’ 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액티브엑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다양한 파일과 데이터들을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PC에 설치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플러그인 기술이다. 본인확인이나 결제 등을 위해 자주 쓰이는데, MS의 브라우저인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깔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br/> <br/>그러나 우리나라는 윈도와 IE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대부분의 온라인 사이트가 결제 과정에서 보안 등을 이유로 액티브엑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br/> <br/>박근혜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span class='quot0'>드라마(‘별에서 온 그대’)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8.txt

제목: 암줄기세포 면역치료, 암 해결 위한 새로운 가능성 제시  
날짜: 20140318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810013764527  
ID: 01100701.20140318100137645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대의학의 발달로 암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통계적으로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암의 중기·말기의 경우 여전히 낮은 치료 효과율을 보이고 있어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r/> <br/>일본에서는 제4의 치료법인 면역요법과 같은 암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 큐우슈우지역 구마모토에 소재한 암 면역 전문병원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이하 ‘박사’)는 면역세포치료 분야의 권위자다. <br/> <br/>박사는 면역세포의 동시배양을 통해 면역세포가 팀이란 개념으로 암 세포를 없애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br/> <br/>병원 측에 따르면 박사가 개발한 5종복합면역요법을 수지상세포에 인식시킨 ‘DC-아이백•WT1요법’이 높은 암 치료 유효율을 보이고 있어 일본 내 암 환자들의 한줄기 빛이 되고 있다. <br/> <br/>현재 박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치료법은 ‘DC-아이백•CSC요법’으로 일명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면역백신요법’이다. <br/> <br/>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span class='quot0'>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줄기세포는 평소 휴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암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츠네오 박사는 일본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항원을 3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br/> <br/>특히 5종복합면역요법과, 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 그리고 암 줄기 세포 특이항원 펩티드가 결합된 DC-아이백•CSC요법으로 75%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기대하고 있다. 박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 치료법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br/> <br/>현재 츠네오 박사의 센신병원은 일본 정부의 지원금으로 도쿄에 제2병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일본 지역 내의 35여 개의 제휴병원을 통해 암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를 제공하고 있으며 표준 치료로의 발전을 노리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29.txt

제목: 암치료의 다각화…수지상세포치료에 이어 암줄기세포면역치료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4100000298  
ID: 01100701.2014031410000029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암환자 수는 11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연평균 3% 넘는 신규 암환자가 생겨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환자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암환자들은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진단의학의 발달로 인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높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진행 암이나 말기 암의 경우 낮은 치료 효과율을 보이고 있다.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의 암 치료 또한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제4의 치료법이라고 말하는 면역요법과 같은 암 치료 분야에서는 국내와 확연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일본, 큐우슈우지역 구마모토에 소재한 암 면역 전문병원인 센신병원의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이하 ‘박사’)는 면역세포치료로 유명하다.박사는 5가지 면역세포의 동시배양을 성공 시켜면역세포간 네트워크(Network)화로 암세포에 대한 팀플레이(Team play)를 가능하게 해 암치료 유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5종복합면역요법’이란 치료법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으로부터 주목과 관심을 받는 상황.더불어 5종복합면역요법에 수지상세포에 WT1 암 펩티드(암항원)를 인식시켜 개발한 '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이라고 불리는 ‘DC-아이백•WT1요법’은 높은 암 치료 유효율을 보이고 있다.현재 츠네오 박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치료법은 DC-아이백·CSC요법이다. 다시 말하면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면역백신요법이다.1997년, 캐나다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급성골수성 백혈병환자의 세포에서 암 줄기세포가 발견되어 학계에 발표되었고, 그 이후로 여러 암세포에서 암 줄기세포가 발견되었고 현재까지 12종류의 암에서 줄기세포가 발견되고 있다.암 줄기세포는 암세포를 만들어 내는 암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로 정상세포의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자기복제능력’과 ‘다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암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차단할 수 있다. 암 줄기세포는 평소 휴면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암제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박사는 암 줄기세포의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일본의 유명 제약회사와 공동으로 암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항원을 3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DC-아이백·CSC요법은 5종복합면역요법· 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 그리고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펩티드가 결합된 암 치료법으로 높은 치료유효율을 기대하고 있다.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작년 말부터 이 치료법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경과를 보이고 있다.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암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센신병원은 박사의 연구 기술과 실력을 정부에서 인정하여 정부 지원금으로 도오쿄오(동경)에 제2병원(린카이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35여 개의 제휴병원에 암 치료를 위한 면역세포를 제공하고 있고 표준 치료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0.txt

제목: 자죽염, 9번 구워야 얻을 수 있는 '땀의 결정체'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4100000266  
ID: 01100701.20140314100000266  
카테고리: 문화  
본문: 자죽염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다.13일 방송된 MBN '리얼다큐 숨'에는 서해 천일염과 왕대나무, 황토, 소나무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해 9번 구워내야 얻을 수 있는 땀의 결정체인 자죽염이 전파를 탔다.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자죽염은 3번 구워낸 죽염과 달리 1000도에서 8번 반복해 구워낸다. 또 1700도 이상 고온에서 다시 소금을 녹이는 까다롭고 인내가 필요하다. 만고의 노력이 깃든 자죽염은 정화 기능이 있는 황토, 뼈와 근육 강화에 좋은 소나무의 장점도 고루 녹아 있다고.최근 바이러스와 암을 예방하는데 자죽염 만한 것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은 온통 자죽염에 쏠려 있다. 온라인 뉴스팀사진=MBN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1.txt

제목: 임신 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해요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110013707564  
ID: 01100701.201403111001370756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신모(30)씨는 아기를 갖기 전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임신 전 자궁경부암과 풍진 백신을 맞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span class='quot0'>가임기 여성에게 권고되는 백신을 임신 중에 맞아도 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예방접종 종류도 많은데 어떤 게 되고 안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span>”고 말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자궁경부암과 풍진 백신은 임신 중에는 맞으면 안 된다. 산전 검사에서 항체 없음으로 나타나도 출산 후에 맞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천성모병원 신재은 교수의 도움말로 임신 중에 접종해도 되는 백신과 안 되는 백신에 대해 알아봤다. <br/> <br/>◆자궁경부암·풍진… 임신 중 접종 NO <br/> <br/>백신은 살아있지만 성질이 약해진 균을 투입하는 생백신과 죽은 균의 일부를 접종하는 사백신으로 구분된다. 생백신은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임신 중 접종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백신은 적절한 항체를 보유하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1∼3회 맞아야 하므로 접종 의지가 있다면 여유 기간을 두는 게 좋다. <br/> <br/>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임신 중 접종으로 인한 기형 발생 보고는 없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유일한 암인 만큼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맞아야 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회음부 상피내종양, 생식기 사마귀, 항문암 등을 유발한다. <br/> <br/>풍진도 여성에게 강력 추천하는 백신이지만 임신 중에는 맞으면 안 된다. 생백신이어서 살아있는 균이 태반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풍진 백신을 맞았을 때는 한 달간 임신을 피해야 한다. 생백신인 홍역과 수두 백신도 마찬가지다. <br/> <br/>수두는 보통 어린 시절 앓고 지나가지만 성인 감염은 폐렴·뇌막염 등 중증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훨씬 위험하다. 임신 중에 감염되면 1% 확률로 태아에게 선천성 감염을 일으킨다.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산전 검사에서 발견했을 때는 접종을 포기해야 한다. <br/> <br/> 한 여성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태아 기형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임신 중에는 맞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br/>한림대의료원 제공◆인플루엔자 백신… 언제든 OK <br/> <br/>임신 중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금지 항목보다 많다. 신종플루 같은 유행성 인플루엔자가 창궐할 때 임신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행히도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이후 모두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백신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임신 기간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B형 간염, A형 간염, 폐렴구균 백신이 이에 해당한다. 단 항체가 없는 군인, 외식업·의료계 종사자 등 고위험군은 임신 중이라도 접종이 권고된다. <br/> <br/>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분류돼 있어 대부분 어린 시절 항체를 갖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수치가 점점 떨어진다. 이 중 백일해는 세계적으로 발병 사례가 늘고 있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집단 발병 사태가 일어났다. 신생아 감염은 사망 원인이 된다. 가족 간 감염률이 높아 부모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일부에서 백신의 위험성을 주장하지만 신 교수는 “<span class='quot1'>그 어떤 항생제도 백신만큼 질병에 의한 사망률을 줄여주지 못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임신부는 면역 능력이 떨어져 감염 시 폐렴 또는 패혈증 등 각종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크고, 임신부 감염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요 질병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2.txt

제목: 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날짜: 20140310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10100000356  
ID: 01100701.20140310100000356  
카테고리: 사회  
본문: 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나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국군의무사령부는 이 병사의 병세가 이처럼 악화한 것과 관련, 군병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한편,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B 대위가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K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고용석 기자 kys135@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3.txt

제목: 한화생명, 블로그 어워드 대상 수상  
날짜: 20140307  
기자: 세계파이낸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7100000440  
ID: 01100701.20140307100000440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한화생명 공식블로그 ‘라이프앤톡(www.lifentalk.com)’이 2030세대와 통했다.한화생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최하는「제5회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에서 보험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는 1년간 가장 왕성하고 의미있는 블로그 활동을 보여준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한다.한화생명 공식블로그 ‘라이프앤톡’은 2012년 5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방문객 약 2백만명, 일 평균 약 4000명(13년 기준)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임직원으로 구성된 전문 필진 10여명이 금융 관련 정보를 게시한다.한화생명 블로그의 인기 비결은 어려운 금융, 보험 정보를 친근한 소재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보험사 입사 노하우, 보험 자격증 취득비법과 같이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주제는 물론, 상품기획자가 들려주는 보험 이야기, 암보험 가입 노하우, 세법개정 대비 절세방안 등 전문적인 보험정보도 알기 쉽게 제공한 것이 타사 블로그와의 차별점이다.한화생명은 2030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블로그 외에도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whalife), 트위터(https://twitter.com/hanwhalife),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를 1일 1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4.txt

제목: 고기 많이 먹는 당신, 식습관부터 바꿔라!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30410013642683  
ID: 01100701.201403041001364268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살코기·생선·달걀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호흡기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고기는 되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span class='quot0'>한국인은 돼지고기·소고기 등 지방 함유량이 높은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대장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붉은 계열보다 닭고기·생선 등 흰색 고기를 선택하는 게 좋다</span>”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헝가리·체코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br/> <br/>◆핏빛 고기의 역습…대장암 유발 <br/> <br/>대장은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지닌 내장기관이다.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의 수분을 빨아들인 뒤 찌꺼기를 직장에 모았다가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영양분의 소화와 흡수 대신 생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유독한 노폐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br/> <br/>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서구식 식습관은 대장암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의 인과 관계는 세계 각국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래전에 밝혀졌다. 돼지고기·소고기 등 지방 함량이 높은 붉은색 고기는 대장암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담즙산 분비를 촉진한다. 담즙산은 대장 내 세균에 의해 발암 물질로 바뀌면서 대장 점막을 자극한다. 이 때문에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된다. <br/> <br/>한국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에는 돼지고기·소고기 등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문화가 있다.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닭고기·생선 등 흰색 고기를 택하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br/>세계일보 자료사진동물성 지방은 채소나 곡물에 비해 대장 통과 시간이 길다. 우리 몸에 발암 물질이 생겼을 때 다른 기관에 비해 접촉 시간이 길어 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칼로리 과다 섭취와 비만은 그 자체로 대장암 위험도를 높인다. 비만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1.5∼3.7배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음주와 암 발생률도 비례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한두 잔 가볍게 마시는 게 아닌 거나한 음주는 대장뿐 아니라 간·식도의 암 발병률을 높인다. 이대목동병원 정순섭 위암·대장암협진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과음으로 인해 췌장암·결장암 발병률이 2배 늘고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아진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채소·과일 섭취…베리류 효과 ‘쏠쏠’ <br/> <br/>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미미한 ‘소리없이 다가오는 질병’에 속한다.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5개년 질병통계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6개월 넘도록 증상을 방치한 뒤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서도 복통·설사·혈변 등 대장암 증상을 급성 장염이나 기능성 장염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 <br/> <br/>대장암 예방에는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붉은색 계열보다 닭고기와 생선 같은 흰색 계열을 택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과일 중에는 딸기·블루베리·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큰 도움을 준다. 바나나보다 2.5배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한 블루베리는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억제해준다. 보석 중의 보석은 아사이베리다. 아사이베리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의 21배, 석류의 23배, 적포도의 55배, 키위의 120배 높아 ‘베리 중의 베리’로 불린다. <br/> <br/>블루베리단, 야채는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 무턱대고 많이 먹는 게 좋지만은 않다. 비빔밥에 들어가는 껍질 및 줄기류의 고섬유질 채소는 대장의 수분을 지나치게 빨아들여 부종과 변비, 심하면 장폐색을 초래하기도 한다.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채식주의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해지기 쉽다. 생선·두부를 적당히 섭취하며 영양균형을 맞춰야 한다. <br/> <br/>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53%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다. 이를 예방·극복하려면 이미 알고 있는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 채식·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흡연·음주를 삼가는 것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50세 이상 성인이 첫 검사에서 정상일 경우 5∼10년 주기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5.txt

제목: 혈액검사로 5년내 사망 위험 예측…혈액속 4개지 핵심 생물표지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7100000461  
ID: 01100701.2014022710000046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현재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5년 안에 의학적인 이유로 사망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개발됐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핀란드 분자의학연구소의 요하네스 케투넨 박사가 개발한 이 혈액검사법은 혈액속의 4가지 핵심 생물표지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생물표지란 혈액, 체액 또는 조직 속에서 발견되는 생물분자로 어떤 비정상적인과정 또는 질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이다. 이 4가지 생물표지는 알부민, 알파-1-산성 당단백, 구연산, 초저밀도지단백으로이 수치들이 높으면 5년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케투넨 박사는 밝혔다.대체로 건강한 사람 1만7000여 명으로부터 혈액샘플을 채취해 수백 가지의 생물표지를 측정하고 5년간 지켜본 결과 이 중 684명이 암, 심혈관질환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사망자들은 한결같이 이 4가지 생물표지 수치가 비슷하게 높았다는 것이다.이 생물표지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20%가 혈액검사 후 첫해에 사망했다.이 4가지 생물표지는 간과 신장 기능, 염증, 감염, 에너지 대사, 혈관건강과 관련된 것들이다.보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이 특정 생물표지 수치가 높으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결함이 몸속에 숨겨져 있다는 신호라고 케투넨 박사는 설명했다.그는 이 4가지 생물표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그러나 이 혈액검사법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 혈액검사로 5년 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속수무책이라면 누가 검사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그는 반문했다. 이 연구결과는 온라인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의학’(PLoS Medicine)에  실렸다.온라인 뉴스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6.txt

제목: 미래를 바꿀 신기술 ‘10가지’ 공개…‘세상’을 바꿔라  
날짜: 20140227  
기자: 김동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710013583435  
ID: 01100701.20140227100135834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br/> <br/>미래를 바꿀 신기술 10가지가 공개돼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미국 현지 언론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 10개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br/> <br/>보도에 따르면 학계, 산업계 등의 지도자로 구성된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는 앞선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분석해 신기술을 선정했다. 누버 어페이언 위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신기술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의 틀과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span>”고 역설했다. <br/> <br/>제일 먼저 소개할 신기술은 ‘생각만으로 조작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다. 말 그대로 뇌파를 이용해 장치를 움직이는 기술이다. 이는 특히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움직일 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br/> <br/>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과 기존 모델보다 40% 이상 가볍고 에너지 소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초경량 자동차도 눈길을 끈다.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잉여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기 그리드 방식도 나오며, 심박동수와 스트레스 지수 등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입는 전자제품도 곧 나온다. <br/> <br/>힘세고 수명이 오래가는 나노와이어 리듐 이온 배터리도 미래를 바꿀 키(key)다. 또 3차원 이미지가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디스플레이도 나오며, 암 같은 난치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인체 미생물 치료법도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RNA 기초 치료법’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모델이용’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r/> <br/>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br/>사진=WEF 홈페이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7.txt

제목: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 5종복합면역요법 및 수지상세포치료 연구발표  
날짜: 2014022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2110013538155  
ID: 01100701.201402211001353815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일본 큐우슈우· 구마모토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센신병원은 정부의 정책의 지원을 받아 동경에 제 2 병원을 설립하여 암 치료 전문병원으로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으로 원장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미국 유학시절부터 세포학과 면역학에 정통한 인물로 면역치료 대가로 꼽히고 있다. <br/> <br/>츠네오 박사가 암 치료를 위해 행하고 있는 5종복합면역요법은 5종의 면역세포를 동시에 배양함으로써 세포 간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되어 팀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면서 암 치료 유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br/> <br/>5종복합면역요법의 기저에는 이와 관련한 ‘암 면역요법 용 세포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력이 있었고, 이 기술은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br/> <br/>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은 수지상세포에 WT1펩티드 인공 암 항원을 인식시켜 주어 암세포를 좀 더 정확히 찾아내어 공격하는 암치료법으로 기존의 수지상세포백신치료의 문제점을 보완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br/> <br/>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은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암치료법으로 수지상세포만을 배양하여 암 펩티드 항원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5종의 면역 세포가 함께 배양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5종복합면역요법에 수지상세포면역백신요법이 결합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br/> <br/>지난 2월 6일, 동경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5종복합면역요법과 新수지상세포획득 면역백신요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치료 유효율에 대한 발표도 하였는데, 新수지상세포 획득면역백신요법의 경우 치료 유효율이 70~75%이고 치료를 받은 암환자 60% 정도가 말기 암 환자였다는 점이다. <br/> <br/>강연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의 호응은 물론 일본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또한 구라모치 츠네오 박사는 3년 전부터 일본 유명 제약회사, 그리고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해 왔는데 지난해 중순에 개발에 성공하였다. <br/> <br/>특히 지난 연말부터 DC아이백-CSC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암 줄기세포특이항원 펩티드를 적용한 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 新수지상세포획득면역백신요법에서의 WT1 암 항원펩티드와 더불어 암 줄기세포 특이항원 펩티드를 함께 수지상세포에 인식시켜 암의 근원이고 재발·전이의 주범인 암 줄기세포를 공략하는 암치료법으로 기존 치료법의 유효율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r/> <br/>센신병원은 일본 전역에 걸쳐 30여개 이상의 협력 또는 제휴 병원에 구라모치식 면역 세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라모치 박사가 추구하는 암 치료의 목표는 현재의 면역치료를 더욱 발전시켜 표준 치료로 인정을 받고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8.txt

제목: [사이언스리뷰] 인지컴퓨팅 시대 열린다  
날짜: 201402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910013520874  
ID: 01100701.20140219100135208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일반인에게는 공상과학 영화 등에서나 들어봤음직한 인공지능 이야기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은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50년 가까이 중요한 기술로 인식됐지만, 초창기의 막대한 관심에 비해 1980년대 후반에는 ‘인공지능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큰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br/> <br/>그러나 1997년 IBM의 딥블루(Deep Blue)라는 컴퓨터가 세계 체스챔피언인 개리 캐스파로프를 꺾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IBM의 왓슨(Watson)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세계 최고의 퀴즈쇼인 제퍼디(Jeopardy)에서 전설적인 두 명의 퀴즈왕을 상대로 한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이 현실세계를 크게 바꾸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br/> <br/>현재의 컴퓨터는 존 폰 노이만이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와 입출력장치의 구조를 개념화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라고 부른다. <br/> <br/>초창기의 컴퓨터에 비해 기억장치의 용량과 속도가 수백만 배 늘어나고 빨라졌지만, 현재의 컴퓨터 역시 이런 계산기와 비슷한 기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와는 무척 다르다. 이런 구조의 컴퓨터는 주어진 작업을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가지지만 인간의 뇌처럼 유연성 있는 판단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에는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br/> <br/>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IBM은 인간의 뇌처럼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효과적으로 대규모 병렬처리를 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인간의 뇌는 어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된 정보처리 기계이면서 현존하는 최고의 기계라고 할 수 있다. <br/> <br/>그러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인간의 뇌와 비교한다면 어떨까. 사실 왓슨이 퀴즈쇼를 통해 그 능력을 증명했고, 뒤이어 미국 최고의 암센터에서 암환자 진료에 활용되면서 광고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공정하게 인간의 뇌와 비교한다면 많은 면에서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왓슨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4000명이 넘는 사람의 뇌가 동시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동일하다고 한다. <br/> <br/> 정지훈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미래학최근에는 단순한 인공지능의 수준을 넘어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지기능을 갖춘 컴퓨터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컴퓨터 기술 자체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반향도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이라고 부른다. 컴퓨터를 인지 시스템으로 본다면 단지 프로그래밍된 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며,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br/> <br/>전통적인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도전했던 인공지능의 목표가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인간의 뇌와 유사한 컴퓨터 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터 칩을 이용해서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br/> <br/>이같이 새로운 인지컴퓨팅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간의 뇌와 같이 복잡하고 집적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재나 집적기술 전반에 혁신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뇌과학 연구의 성과가 컴퓨터 과학 연구자들과 공유돼야 하며, 작업을 부여하고 작업을 평가하는 방식 등에서도 정의할 부분이 많다. <br/> <br/>또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성을 줄 것인지, 그리고 작업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작업모델이나 높은 수준의 자율성에 따른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지컴퓨팅이 중시되는 미래에는 더욱 융합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br/> <br/>정지훈 명지병원 IT 융합연구소장·미래학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39.txt

제목: 이제는 정복 가능한 병, 암!  
날짜: 20140217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7100000533  
ID: 01100701.2014021710000053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소화기관에 생기는 종양인 기스트와 표적치료법을 소개한다.기스트(위장관 기질종양)란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 생기는 종양으로 위장관벽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희귀 종양이다. 희귀 종양인만큼 치료도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표적 치료제 ‘이매티닙’을 통해 뛰어난 효과가 입증됐다.기스트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암과 달리 위장관벽의 근육층에 발생하는 희귀종양이다. 기스트는 외부 점막 조직 검사로 확진을 내릴 수 없어 수술과 동시에 진단이 이뤄져야 할 정도로 검진 역시 쉽지 않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암이나 궤양에 비해 증상도 크지 않아 병을 더욱 악화시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기스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간을 포함한 전신으로 전이가 잘 된다는 것. 이렇듯 환자의 온 몸에 병변이 전이되면 수술도 쉽지 않다. 그때 쓰이는 치료가 표적치료제의 일종인 ‘이매티닙’이다. ‘이매티닙’은 기스트에 쓰인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문제가 되는 암세포만을 정확히 골라 공격한다. 그래서 기존 항암 치료에 비해 평균 생존 기간도 6배 이상 높고 부작용도 적어 치료 도중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흔히 암이라고 하면 절망감을 느끼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암을 찾아내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개개인에게 맞춘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암은 이제 정복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에 맞는 정확한 표적치료제를 찾아 치료하거나 기존의 표준 항암제와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표적치료를 동시에 적용하는 등 암과 공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이번 ‘기스트를 정복하라! 표적치료’ 편에서 기스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19일 밤 10시 방송.한준호 기자 tongil77@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0.txt

제목: 두루마리 화장지 형광증백제 표기 없이 그대로…소비자 '찝찝'  
날짜: 20140214  
기자: 이소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410013476009  
ID: 01100701.2014021410013476009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br/> <br/>두루마리 화장지 안에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알 수 있는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깨끗한나라, 쌍용C&B, 유한킴벌리, 미래생활, 모나리자 등 국내 5개 두루마리 화장지 업체의 재생지 사용 5개 제품에 대한 형광증백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 모두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br/> <br/>그러나 이들 제품을 포함한 45개 화장지 중 형광증백제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미래생활의 '잘풀리는집' 브랜드 5개 제품, 쌍용 C&B의 '코디 에코맘' 등 불과 6개에 불과했다. <br/> <br/>인체 유해물질로 분류된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입술을 닦는 등의 행동으로 몸 안에 들어갈 경우 장염과 같은 소화기질환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br/> <br/>두루마리 형광증백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루마리 형광증백제 표기 평소에 확인안하고 샀는데" "두루마리에 형광증백제 많나?" "두루마리 형광증백제 소식에 화장지 못 쓰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br/> <br/>뉴스팀 news@segye.com <br/>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1.txt

제목: 영국 악마 새우 출물, 꼬리에 혹까지 발견돼 '경악'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1100000308  
ID: 01100701.20140211100000308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영국 악마 새우 출물에 누리꾼들이 경악하고 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마 새우 등장' 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유럽 동부에서부터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새우는 영국 전역에 퍼져 동족의 토착 새우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암가 새우'는 다른 새우들과 비슷한 18mm까지 성장하지만 포식의 크기가 남달라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영국 악마 새우 출물에 누리꾼들은 "영국 악마 새우 출물, 꼬리에 혹도 있네" "영국 악마 새우 출물 미친 파괴자네" "영국 악마 새우 출물, 한국에 올까 겁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2.txt

제목: 제 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오는 6월 삿포르서 개최  
날짜: 2014021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21110013443364  
ID: 01100701.20140211100134433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 학술세미나가 오는 6월 일본 삿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r/> <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지난해 4월 17회 학술세미나에서 ‘신(新) 수지상세포 백신치료’가 전이•재발암 환자 74.4%에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br/> <br/>이 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이 2013년 1~9월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한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56.41%) 22명· 진행된 환자 10명(25.64%)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r/> <br/>치료 결과는 사전, 사후 각각 영상진단과 종양마커검사, 암관련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분석됐으며, 구체적으로 EGFR, K-ras· p-53 검사와 암관련 유전자검사(48종)· 4종류의 약제내성 유전자검사· 암 억제 유전자검사(14종류) 등이다. <br/> <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16회 학술세미나에서도 전이·재발암 환자 1,000명에게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를 실시한 결과, 70%에서 증상이 유지 및 호전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r/> <br/>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백신 치료법은 1996년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가 세계 최초로 단구에서 수지상세포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됐으며, 같은 해 세계 유수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2011년에는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의대 교수가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의 연결고리인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br/> <br/>수지상세포는 인체에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하여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한다고 밝혔다. <br/> <br/>이 기술력은 현재 전 세계에서 소수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나뭇가지 모양의 수지상세포는 ‘면역계의 사령탑’으로 불리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암세포의 항원 정보(표식)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는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 공격한다. <br/> <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CTL은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어, 이 항암면역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다</span>”고 전했다. <br/> <br/>수지상세포의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려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해야 한다. <br/> <br/>아베 이사장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졌다. 또 많은 일본 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한 후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br/> <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이 같은 단점을 개선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해 치료효과가 우수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매번 소량만 채혈로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3.txt

제목: “인간은 우주에 살 만큼 진화하지 않았다”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910013350343  
ID: 01100701.201401291001335034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주여행과 화성 유인탐사 등 우주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우주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과학자들의 답은 ‘노(No)’다. <br/> <br/>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우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체의 변화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이 아직 우주에서 살 만큼 진화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br/> <br/>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들이 국제우주정거장(ISS) 거주 우주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 머무는 동안 골밀도가 낮아지고 시력이 떨어진다. 방사선 노출 탓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심혈관계·신경계·소화계 기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문제는 ISS에 고정된 러닝머신을 설치해 운동을 충분히 하고, 골다공증 예방약을 섭취해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문제들은 원인도,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 <br/> <br/>시력은 안구가 어떤 압력 때문에 원시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왼쪽 눈보다는 오른쪽 눈이 더 시력 변화가 컸다. 방사능은 암 발생 외에도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쥐 실험에서 고농도 방사선에 노출된 쥐는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br/> <br/>이진경 기자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4.txt

제목: 일동후디스·대한비만학회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 MOU 체결  
날짜: 20140126  
기자: 지차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610013316905  
ID: 01100701.20140126100133169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테이블 (왼쪽) 일동후디스 이금기회장, (오른쪽)대한비만학회 우정택이사장일동후디스와 대한비만학회는 지난 23일 양해각서(MOU)를 맺고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br/> <br/>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3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10%에 가까운 당뇨병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된 심뇌혈관 질환과 각종 암 등 치명적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br/> <br/>비만은 유전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환경인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체내에 존재하는 장내 세균총이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분야의 기초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성과를 실제 한국인의 건강증진으로 연결시키는 움직임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br/> <br/>대한비만학회와 일동후디스는 비만인구의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성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비만 및 관련 질환의 퇴치를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특히, 장내 세균총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실험연구 결과를 임상연구 영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평생건강과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식생활 개선 캠페인은 물론, 영양 및 기능성 식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br/> <br/>지차수 선임기자 사진=일동후디스 chaso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5.txt

제목: 비만이 위험한 이유…오래 살고 싶다면 명심하라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4100000290  
ID: 01100701.20140124100000290  
카테고리: 문화  
본문: 비만이 위험한 이유가 공개됐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너무 많이 있다.일단 비만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다.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에 잘 걸릴 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관절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비만이 위험한 또다른 이유는 인지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인슐린이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신경신호가 전달되면서 기억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비만이거나 혈당, 혈압이 높으면 인슐린 수용체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비만이 위험한 이유에 누리꾼들은 "비만이 위험한 이유 정말 최악의 병이다 비만" "비만이 위험한 이유 여자가 날 떠나가기 때문에...." "비만이 위험한 이유 너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스포츠월드 DB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6.txt

제목: 불임, 임산부유산 유발 전자파 원천 차단하는 제품 ‘인기’  
날짜: 20140121  
기자: 비즈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32708001  
ID: 01100701.20140121132708001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최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전자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생성되는 전자파는 과도하게 노출 될 경우 면역체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뇌종양· 신경통· 암 발병률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시 임신·출산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자활동감소 및 불임으로 2011년 영국 데일리 메일이 소개한 아르헨티나 생식연구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매개체(스마트폰· 노트북 등)를 사용할 경우 25% 이상의 정자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9%는 DNA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임산부의 자연유산이다. 미국임신협회는 카페인· 흡연· 음주와 더불어 임산부의 전자파 노출이 유산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으로 보고 유산위험성 감소를 위해 임산부의 전자파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2010년 미국 유타대학의 간디 박사는 “전자파의 투과율이 뼈 두께의 차이로 어린이와 여성에게 최대 196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자연유산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아성장 및 발달저해다. 2010년 UCLA 공중보건의학대학의 키페츠 박사는 임신기간에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세포의 성장· DNA 증식· 뇌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일생 동안 지속되거나 유전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아동 증후군에는 ADHD(집중력장애과잉행동증후군)와 과민행동반응 등이 있다. 현재 임산부용품 시장에서는 태아의 산모를 위한 여러 가지 전자파 차단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저주파 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무선기기, 특히 와이파이 등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파를 차단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문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방송통신 최고 관리기관인 'FCC'와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연방 표준기술원인'NVLAP'(미국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통해 인증된 섬유소재로 제작된 전자파 차단제품인 ‘벨리아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미 전자파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타임지 등 저명한 외신들이 ‘벨리아모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어,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필수적인 임신·출산용품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벨리아모는 중금속이나 독성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품질의 면과 고전도 은 섬유인 레디아실드 원단(RadiaShield®Fabric)으로 구성되어 유입되는 전자기장을 완화해주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를 아우르는 영역(10MHz~8000MHz)에서 99.9%의 차단율(40~70dB)을 보인다. 또한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해 전자파차단 담요· 밴드· 수유가리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사용돼 임산부의 활용을 고려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벨리아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벨리아모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임산부 가정은 물론 전자파 노출 위험이 큰 남녀직장인들에게까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벨리아모는 제품 판매 외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정보와 임산부와 전자파의 관계, 전자파차단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제품은 홈페이지(www.bellyarmor.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7.txt

제목: 불임, 임산부유산 유발 전자파 원천 차단하는 제품 ‘인기’  
날짜: 20140121  
기자: 나우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0013276038  
ID: 01100701.2014012110013276038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최근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전자기기 및 스마트폰 사용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br/> <br/>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제품에서 생성되는 전자파는 과도하게 노출 될 경우 면역체계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뇌종양· 신경통· 암 발병률 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br/> <br/>특히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었을 시 임신·출산에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다음과 같다. <br/> <br/>먼저 정자활동감소 및 불임으로 2011년 영국 데일리 메일이 소개한 아르헨티나 생식연구기관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와이파이가 연결된 매개체(스마트폰· 노트북 등)를 사용할 경우 25% 이상의 정자들이 움직임을 멈췄고, 9%는 DNA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br/> <br/>다음으로는 임산부의 자연유산이다. 미국임신협회는 카페인· 흡연· 음주와 더불어 임산부의 전자파 노출이 유산을 야기하는 잠재요인으로 보고 유산위험성 감소를 위해 임산부의 전자파 차단을 권고하고 있다. <br/> <br/>이에 2010년 미국 유타대학의 간디 박사는 “전자파의 투과율이 뼈 두께의 차이로 어린이와 여성에게 최대 196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자연유산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r/> <br/>또 태아성장 및 발달저해다. 2010년 UCLA 공중보건의학대학의 키페츠 박사는 임신기간에 전자파에 노출될 경우 세포의 성장· DNA 증식· 뇌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그 피해가 일생 동안 지속되거나 유전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대표적인 아동 증후군에는 ADHD(집중력장애과잉행동증후군)와 과민행동반응 등이 있다. <br/> <br/>현재 임산부용품 시장에서는 태아의 산모를 위한 여러 가지 전자파 차단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저주파 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의 무선기기, 특히 와이파이 등에서 방출되는 고주파 전자파를 차단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증까지 받은 업체는 극히 드문 상태다. <br/> <br/>이런 가운데 미국 방송통신 최고 관리기관인 'FCC'와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 연방 표준기술원인'NVLAP'(미국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통해 인증된 섬유소재로 제작된 전자파 차단제품인 ‘벨리아모’가 인기를 끌고 있다. <br/> <br/>이미 전자파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타임지 등 저명한 외신들이 ‘벨리아모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극찬한 바 있어,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필수적인 임신·출산용품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br/> <br/>벨리아모는 중금속이나 독성염료를 사용하지 않은 고품질의 면과 고전도 은 섬유인 레디아실드 원단(RadiaShield®Fabric)으로 구성되어 유입되는 전자기장을 완화해주고 저주파에서 고주파를 아우르는 영역(10MHz~8000MHz)에서 99.9%의 차단율(40~70dB)을 보인다. <br/> <br/>또한 일률적인 디자인에서 탈피해 전자파차단 담요· 밴드· 수유가리개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사용돼 임산부의 활용을 고려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인기의 비결이다. <br/> <br/>벨리아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미 해외 임산부들에게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벨리아모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임산부 가정은 물론 전자파 노출 위험이 큰 남녀직장인들에게까지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 <br/> <br/>벨리아모는 제품 판매 외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정보와 임산부와 전자파의 관계, 전자파차단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와 제품은 홈페이지(www.bellyarmor.co.kr)에서 만나볼 수 있다.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8.txt

제목: 체내 단백질 형성 제어 분자스위치 발견  
날짜: 201401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2110013279694  
ID: 01100701.20140121100132796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공동연구팀이 암치료와 뇌질환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단서를 찾아냈다. <br/> <br/>카이스트(KAIST)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최명철 교수와 송채연 연구교수가 미국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학, 이스라엘 히브루대학과 공동으로 세포분열과 세포 간 물질수송에 도구로 사용되는 단백질 나노튜브의 형성과정을 제어하는 분자스위치를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br/> <br/>사람 몸속에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세포를 분열시키는 방추사(실 모양의 단백질)는 튜브 형태의 마이크로튜불(microtubule)로 이뤄져 있다. 굵기는 25나노미터에 불과하다. <br/> <br/>연구팀은 싱크로트론 엑스선 산란장치(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강력한 엑스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와 투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단백질 나노튜브의 자기조립 구조를 1나노미터 미만의 정확도로 측정했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 19일자에 실렸다. <br/> <br/>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49.txt

제목: [WT논평] Another phony scare story  
날짜: 2014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910013258159  
ID: 01100701.2014011910013258159  
카테고리: 국제  
본문: Next time headlines wax hysterical about global warming, fracking or other eco-scares, remember the recent Times of London article that claimed “a toxic cocktail” of chemicals is “destroying Britain’s amphibians.” <br/> <br/>Studies show even low concentrations of pesticides and other chemicals have a “powerful effect” on amphibian immune systems, causing diseases that have been around for decades to “suddenly become much more deadly,” the story said. It quoted Elizabeth Salter Green, director of CHEM Trust, which sponsored the “research,” as saying “the European Union needs to take a lead on both identifying and controlling the risks.” <br/> <br/>The plausible-sounding story has some credibility problems, however. CHEM Trust is financially supported by Greenpeace, which spends millions of dollars annually opposing pesticide spraying to prevent malaria that kills nearly a million people annually. <br/> <br/>Moreover, the CHEM Trust paper was an advocacy brief - a summary of research papers and conclusions selected to support claims that chemicals pose unacceptable risks. <br/> <br/>That arbitrary standard focuses on risks of using chemicals - but never on risks of not using them. It spotlights risks a chemical might theoretically cause, but ignores risks it would reduce or prevent. It is another potent weapon for anti-technology activists: whatever they support complies with the precautionary principle and whatever they oppose violates it. <br/> <br/>The Times article was apparently based on exclusive access to the embargoed report - recalling the infamous 2012 Seralini case, involving anti-biotechnology activists purporting to prove genetically modified foods cause cancer in rats. Accompanied by gruesome photographs of lab rats with massive tumors, the study was released under an “embargo” to selected journalists, who signed an agreement not to show the paper to outside scientists before the media covered the story. <br/> <br/>That meant the journalists could not seek unbiased comments or provide any balance or corrections to the activist storyline. Within 24 hours after the embargo was lifted, independent scientists exposed almost every aspect of the “study” as flawed and even fraudulent. New York Times blogger Carl Zimmer called the episode “a rancid, corrupt way to report about science.” <br/> <br/>But Gillis-Eric Seralini got the headlines he wanted, as “mainstream” news outlets ran the story. In this case, so did Greenpeace and CHEM Trust. <br/> <br/>주류언론의 편파적인 생태 기사 보도 <br/> <br/>폴 드리슨(美 미래건설위원회 정책고문) <br/> <br/>다음에 지구온난화, 파열공법, 다른 생태 공포에 관해 언론매체들이 신경질적인 머리기사 제목으로 보도할 때는, 몇몇 화학물질의 “유독한 혼합”이 “영국의 양서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런던 타임스의 최근 기사를 기억하자. <br/> <br/>살충제와 다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은 농도가 낮은 경우일지라도 양서류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 지난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온 몇몇 질병을 “갑자기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이 기사는 말했다. 이번 “연구”를 후원한 CHEM 트러스트의 사무국장인 엘리자베스 솔터 그린은 “유럽연합은 각종 위협을 식별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신문은 인용 보도했다. <br/> <br/>그러나 개연성을 가진 듯이 보이는 이 기사는 몇 가지 신뢰 문제를 갖고 있다. CHEM 트러스트는 그린피스의 재정지원을 받고 그린피스는 매년 근 1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살충제 분무에 반대하는데 연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다. <br/> <br/>뿐만 아니라 CHEM 트러스트의 문서는 편파적인 옹호를 했다. 즉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골라낸 연구논문들과 결론의 요약이다. <br/> <br/>자의적인 그런 기준은 화학물질 사용의 위험부담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용하지 않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에는 결코 주목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하나의 화학물질이 이론적으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위험부담을 강조하지만 그 화학물질이 줄이거나 예방하는 각종 위험부담은 무시한다. 그것은 기술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다. 그들이 지지하는 것은 모두 예방원칙에 따르며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모두 예방원칙에 위배된다. <br/> <br/>독점 취재한, 보도 관제된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한 타임스 기사는 유전자 조작 식품들이 쥐의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입증할 목적을 가진 생명공학 반대 운동가들이 관련된 2012년의 악명 높은 세랄리니 사건을 상기시킨다. 대형 종양이 생긴 실험실 쥐들의 소름끼치는 사진을 첨부한 세랄리니 연구는 선별된 언론인들에게만 “보도관제”를 조건으로 공개되었다. 해당 언론인들은 매체가 기사를 보도하기에 앞서 논문을 외부 과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br/> <br/>그것은 해당 언론인들이 편견 없는 논평을 구하거나 운동권의 이야기에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보도관제가 풀리고 나서 24시간 안에 중립적인 과학자들이 그 “연구”의 거의 모든 면에 결함이 있거나 심지어 기만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뉴욕타임스의 블로거 칼 짐머는 그 사건을 가리켜 “과학과 관련된 부패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br/> <br/>그러나 "주류" 뉴스 창구들이 그 이야기를 보도함에 따라 길리스-에릭 세랄리니는 원했던 대로 기사가 대서특필되도록 만들었다. 이번 경우에는 그린피스와 CHEM 트러스트가 그렇게 했다. <br/> <br/>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0.txt

제목: 포스코 미래, 권오준 과거에서 찾다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710013251020  
ID: 01100701.2014011710013251020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span class='quot0'>권오준의 과거가 포스코의 미래다.</span>” <br/> <br/>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권오준(사진) 기술총괄 사장이 확정되자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1986년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입사 이후 EU사무소장으로 독일에 나가 있던 3년을 제외하면 25년을 줄곧 연구 업무만 도맡았다. 그나마 독일 시절에도 포항 등을 오가며 자동차용 신고강도강재 등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 업체와 교류하는 데 힘썼다. 그는 회장 내정 직후 첫 출근길인 17일 취재진에게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과 관련 “<span class='quot0'>(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들겠다</span>”고 말했다. 권오준은 어떤 인물이고 그가 생각하는 포스코 ‘신경영’은 뭘까. <br/> <br/>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공대를 나온 권 사장이 가장 아끼는 모임 중 하나로 고교 언덕인 ‘청’량대와 서울대 불‘암’산에서 이름 딴 ‘청암회’가 있다. 박태준 고 포스코 명예회장의 호와는 별개다. 유명한 모임은 아니지만 1년에 2∼3번 세상살이를 나누고, RIST 원장시절에는 청암회 선후배를 포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이젠 정준양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회장만 두 명째다. <br/> <br/>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이희범 LG상사 부회장 등도 청암회 멤버다. 권 사장과 청암회 동기인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span class='quot1'>고교 때부터 뚝심 있고 착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뛰어났다</span>”며 “<span class='quot1'>세계 철강판세를 딱 보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포스코를 기본부터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이전에 벌여놓은 사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잘 추스르고 재무적 건전성도 확보해야 할 것</span>”이라고 조언했다. 역시 청암회 20회 동기인 송재영 한국선박기술 부사장은 “<span class='quot2'>내가 조선 분야라서 후판에 대해 많이 얘기했는데 한때 기술적으로 일본에 뒤처졌지만 그 친구 같은 사람 덕분에 이젠 일본은 물론 세계 으뜸인 기술이 상당하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2009년 청암회 2년 선배인 정준양 회장 취임 직후 RIST 원장이 됐다. 권 사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span class='quot3'>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용화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다</span>”며 “<span class='quot3'>소규모 단기간적인 연구활동을 지양하고, 대형과제 중심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연구관리체제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시 RIST 직원은 “<span class='quot4'>연구개발 단계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모든 걸 알려고 하셨다</span>”며 “<span class='quot4'>‘포스코를 RIST가 먹여살려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span>”고 전했다. <br/> <br/>그가 꿈꾸는 포스코의 신경영은 기술총괄장이던 2012년 RIST 25주년 기념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는 당시 “<span class='quot4'>포스코가 추진 중인 철강, 그린소재, 그린에너지, 신수종의 4대 사업군 중에서 철강을 제외한 3대 사업군의 핵심기술 개발이 RIST에서 진행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성공적인 신성장 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통해 ‘포스코 비전 2020’을 실현시킴으로써 미래가치를 창조해 달라</span>”고 강조했다. <br/> <br/>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1.txt

제목: ‘완전식품’ 우유, 과연 인간에게 이로운가  
날짜: 2014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610013242649  
ID: 01100701.20140116100132426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절대 마시지 말라</span>”(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소아과 박사 프랭크 오스키) <br/> <br/>‘신이 준 가장 고귀한 선물’로 인류에게 사랑받아 온 ‘완전식품의 대명사’ 우유.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우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EBS ‘하나뿐인 지구’는 17일 오후 8시50분 ‘자연이 준 최상의 음식’이라는 찬사와 ‘과대광고가 만들어낸 신화’일 뿐이라는 오명을 동시에 듣고 있는 우유에 대해 알아본다. <br/> <br/>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튼튼한 뼈를 위해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학교 우유 급식을 추진해왔다. 한국인 대부분은 우유를 마시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지만 튼튼한 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를 꾸준히 마셔왔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면 칼슘 흡수가 아닌 배출이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우유 속에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체내에 많이 들어오면 혈액이 산성화되어 뼈에 있는 칼슘이 오히려 배출된다는 것이다. <br/> <br/>EBS ‘하나뿐인 지구’는 17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유의 안전성 문제를 하나씩 짚어본다.그러나 상반된 주장도 있다. 지난 11월 미국 보스턴 브리검 여성병원 다이앤 페스카니치 박사 연구팀은 22년간 9만6000여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10대 시절의 우유 섭취가 성인이 된 이후의 고관절 골절의 위험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올해 마흔 살의 주부 박다혜씨는 하루 1000㎖가 넘는 우유를 마신다. 골다공증과 암을 예방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유가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 여성의 유방암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 몸 속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사는 생성을 반복하는데, 우유에 있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체내의 죽은 세포를 되살려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것이다. <br/> <br/>다른 동물과 달리 오직 인간만이 평생 다른 동물의 젖을 먹고 있다. 사실 소의 젖은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젖이 과연 인간의 몸에 최적화돼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br/> <br/>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2.txt

제목: 유방·폐암 유발 단백질 3차 구조 첫 규명  
날짜: 2014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510013231538  
ID: 01100701.20140115100132315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영남대 생명공학부 박현호(40·사진)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과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br/> <br/>영남대는 박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TRAF4’ 단백질의 3차 구조를 규명했다고 15일 발표했다. TRAF 단백질 계열은 염증반응에서 세포 신호 전달에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암이나 면역이상, 알레르기, 동맥경화, 신경퇴행성 질환, 당뇨, 비만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연구결과가 실제 치료제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유방암·폐암 등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 질환의 치료제 개발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3.txt

제목: [SW칼럼] 지구시스템 엔지니어링 우주태양광발전 옵션  
날짜: 2014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12100000139  
ID: 01100701.201401121000001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주태양광발전(Space Solar Power System: SSPS)이란 우주공간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해 발전된 전기를 지구로 송전하면 이를 수신 이용하는 전기에너지를 말한다. 이 방법은 한번 설치하면 연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24시간 365일 동안 단전 없이 오염물질 발생도 없이 발전하는 클린 에너지로서 국가나 지구의 기본전력을 구성하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발전 시스템 이다. 그러나 아직 기술준비 부족으로 경제성의 문제는 있지만, 현재 지표면 발전으로는 그 한계에 부딪혀 있어 지구의 모든 국가들이 나름대로 우주의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자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기 에너지에 모든 걸 걸고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는 전기에너지 대란이 예상되기도 하다. 발 빠른 국가들은 ‘쉘 오일’을 개발해 그 틈새를 메꾸고자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기를 얻기 위해 지구표면을 오염과 환경을 파괴시켰다면 이제부터는 지구내부를 파괴, 오염시키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현상을 만들어낼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에너지에 모든 것이 담보되어 있어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 ‘도끼로 발등 찍는’ 일을 하고 있다고 왜 생각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자신감이 지구의 속을 완전히 병들게 한다는 것에는 관심 없이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올리려는 단견이 판치고 있는 현실의 이기적 정책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어제와 다른 오늘과 내일은 우선순위가 없다 즉 선택과 집중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의 방법을 답습해 무슨 일이라도 먼저 연구하고 개발하는 R&D 덧에 걸려 있는 동안 창조적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경쟁 없는 곳에서 크게 자리잡고 미래의 이익을 위한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일은 선 연구 후 개발이 아니라 선 개발로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제의 시대는 모든 것을 원 클릭으로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대였다면 내일의 시대는 그 공유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창조적 정책적 편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개발된 목적물을 만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연구업적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에 저항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직업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다.우리는 단기간이지만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에 이름 붙여놓았다. 그 증거는 ‘원소주기율표’이며 수 만개의 물질과 이론이 유통되고 있는 풍부한 시대라고 보고 있음이다. 나는 과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선 그것은 누구든 재현 가능한 것 이라고 말한다. 요즘 15살짜리 소녀가 손에 힘을 주면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휴대용 전등 개발은 세상을 깜작 놀라게 했고, 17살 고등학교 학생이 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암으로 투병중이라서 병원에서 검사하면 고가의 검사비와 검사결과까지는 하루이틀이상 걸리는 것을 해결하고자 검사비용 단돈 300원, 단 5분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고등학생이 완전 무인 운전시스템 개발, 3초에 휴대전화 충전 등은 그들이 연구자가 아니며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어마어마한 고도의 실용성 있는 것을 만든 사례다. 연구는 안했지만 연구결과를 활용했으니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과 내일은 연구보다 개발이 우선순위로 변환된 시대적 흐름을 중고생들이 그 증거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노벨상보다 더 과학적인 것을 만드는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에 착안하고 있는 것이다. 안하면 뒤 떨어지니까 어디라도 붙어가야 하기에 ‘쉘 오일’ 기술개발을 기다는 현상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아니 내일에 수천 수억 기가 와트(GW) 무한의 우주태양광발전(SSPS)의 전기 에너지가 창조적 편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 향후 10년 안에 즉 2024년 분기점으로 에너지 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미래 패권국가가 될 것이므로 우주태양광발전을 지구시스템 엔지이어링 옵션으로 힘주어 제안한다.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 스포츠월드 객원편집위원(mwchoi@konkuk.ac.kr)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4.txt

제목: 화이트 라이거 탄생, 전세계 단 4마리 뿐인 '귀한 자태'  
날짜: 201401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7100000443  
ID: 01100701.2014010710000044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화이트 라이거가 탄생 소식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머틀비치사파리 페이스북에 화이트 라이거의 사진이 공개됐다. 마치 있다. 라이거는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종으로 사진 속 화이트 라이거는 하얀 털을 뽐내고 있다. 화이트 라이거는 모두 4마리로 최근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사파리에서 세계최초로 탄생했다.사파리는 화이트 라이거에 각각 예티, 오드린, 샘슨, 아폴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며, 화이트 라이거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화이트 라이거 탄생 소식에 누리꾼들은 "화이트 라이거 너무 귀엽다" "화이트 라이거가 4마리나? 엄청나다" "화이트 라이거 무럭무럭 잘 자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 뉴스팀사진=머틀비치사파리 페이스북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5.txt

제목: MBC퀸, 개국1주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 위한 프로 제공  
날짜: 20140107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7100000259  
ID: 01100701.20140107100000259  
카테고리: 문화  
본문: 지난 2013년 1월 1일 론칭한 MBC퀸이 개국 1주년을 맞이해 세대 간 교감을 통해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고품격 생활정보 No.1 채널'로 새롭게 나선다.‘What Women Want’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MBC QueeN(이하 MBC퀸)은 지난 1년 동안 드라마 ‘네일샵 파리스’, 주영훈과 박은지 진행의 토크쇼 ‘토크콘서트 퀸’ ‘살림살이 차트쇼 더 퀸’ 등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또한 우먼센스와 공동으로 주부들의 꿈을 지원하는 ‘2013 K-QUEEN 콘테스트’ 주최는 물론, 건강한 도전정신이 빛나는 ‘2013 노르딕 레이스’도 공동주최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시청자들의 건강한 도전을 지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자리매김했다.MBC퀸은 2014년에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견세대가 공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최근 3555세대가 적극적인 TV 시청 층으로 급부상하는 것에 발 맞춰, 3555세대가 가장 관심 있는 테마인 ‘도전’, ‘건강’, ‘힐링’, ‘가족’등의 키워드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우선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데일리 모닝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을 당일 송출하는 데 이어 ‘기분 좋은 날’까지 확대해 생활정보 전반을 다루고, ‘건강’ ‘힐링’ 등을 주제로 하는 다큐 및 토크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한다. 지난 달 새롭게 론칭한 70~80년대 향수를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 콘텐츠 ‘별이 빛나는 카페’와 ‘건강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토크 배틀 ‘암과 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건강’, ‘교육’, ‘행복’, ‘성공’을 테마로 한 고품격 특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스포츠 경기 중계는 물론 ‘레저’를 테마로 한 콘텐츠를 편성하고, 세대 간 소통이 가능한 인기 드라마 및 버라이어티도 방송될 예정이다. MBC퀸의 이상미 팀장은 “‘힐링’과 ‘건강’이라는 키워드는 이 시대의 화두이다. MBC퀸은 2014년엔 ‘건강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고,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고품격 생활정보 No.1 채널’로 거듭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6.txt

제목: [재미난 융합과학 이야기] ⑦ 암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날짜: 201401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510013139890  
ID: 01100701.201401051001313989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평균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3명 중 1명, 여자는 4명 중 1명일 정도라고 한다. 암은 무엇이고, 왜 치료가 어려운 것일까. <br/> <br/>정상 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거나 다른 세포와 접촉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세포의 DNA에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서다. 그러나 이 조절 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된다. <br/> <br/>그림처럼 정상적인 포유동물의 세포는 배양하면 20∼50번 분열한 후 노화돼 사멸한다. 하지만 암세포는 배양 상태에서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분열을 계속할 수 있어 영원히 죽지 않는다. <br/> <br/>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분열해 증식하면 다른 세포들 위로 여러 층을 이루며 세포 덩어리를 만드는데, 이를 종양이라고 한다. 종양 중에서 막에 싸인 상태로 유지돼 주변 조직으로 침투하지 않아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것을 양성종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종양은 주변 세포를 분해해 혈관 속으로 들어가 다른 부위까지 이동해 또 다른 종양을 유발하기도 한다. 종양 세포가 이동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며 전이를 일으키는 종양을 ‘악성종양’, 즉 암이라고 한다. <br/> <br/>정상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만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방사선과 자외선, 지나친 고지방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담배에 들어 있는 타르, 일부 바이러스의 감염 등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몸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됐다고 정상 세포가 반드시 암세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세포는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수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유전자가 계속 손상되면 암이 유발될 수 있다. 암은 전이가 일어나면 치료하기 어려우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br/> <br/>미래엔 올리드 과학팀

언론사: 세계일보-4-657.txt

제목: 소람한방병원,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성공적 도입  
날짜: 2014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701.20140103100000411  
ID: 01100701.201401031000004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소람한방병원은 ‘제4의 암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지난 2012년 12월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도입해 2013년 12월까지 가동 횟수가 4500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항암제 작용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간암, 위암, 대장암, 폐암은 물론 모든 암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지난 2007년 처음 국내에 소개된 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국내 주요 병원은 물론 해외 암센터에서도 도입 운영 중이다. 우리 몸의 정상세포 조직은 열을 받으면 즉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해 해당 부위의 열을 쉽게 분산시키지만, 종양세포 조직은 열을 분산시킬 수 없어 고온 상태가 된다.이에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42.5~45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면 종양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살릴 수 있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기능으로 인해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하고 방사선, 항암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소람한방병원 성 신 원장(한의학박사)은 “<span class='quot0'>실제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를 진료에 활용 중인 가운데 한방과 양방의 병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고주파 온열암치료기 온코써미아 2대와 셀시우스 1대를 도입, 운영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span>”이라고 전했다.